

김 명 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9 개정 국어교과서 학습활동 연구
- 10학년 현대소설 단원을 중심으로

201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전 수 연

2009 개정 국어교과서 학습활동 연구

- 10학년 현대소설 단원을 중심으로

김 명 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전 수 연

인 준 서

전수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학습활동은 작품을 섬세하게 수용하고 생산해내며 문학을 즐거워할 줄 아는 태도를 갖춘 학습자로 성장시켜가고자 하는 국어교육의 흐름에 맞추어 볼 때, 국어 교재 안에서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학습활동은 작품을 얼마만큼 이해했으며 학습목표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작품의 깊은 수용과 내면화의 과정을 돕고 깨달은 점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학습자의 삶으로 바람직한 가치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기능도 지닐 수 있다. 다시 말해, 학습자에게 미치는 문학의 긍정적인 역할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해지도록 문학과 학습자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징 중에 중요시되고 있는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이라는 실천적인 측면으로 미루어 볼 때, 학습자로 하여금 문학 작품의 수용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생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능하는 학습활동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소설교육이 학습자로 하여금 작품을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된 학습활동이 필요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실천적이면서 학습자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 문학의 내면화를 강조한 학습활동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의 능동적인 작품 해석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문학 작품의 생산을 이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작품에 대한 지식과 기능, 맥락이 통합되어 주체적인 수용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아 ‘실제’로 표현되는 학습활동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학습자가 스스로 문학을 즐겨 찾을 수 있는 능동성과 주체성을 지닌 독자로 성장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작품을 감상할 때, 어떠한 ‘맥락’에서 문학을 수용해야 할 것인지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작품에서 내용 및 형식과 표현의 의미 등을 파악하며 문학을 섬세하게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즉, 학습자로 하여금 작품과 학습활동에 대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작품의 가치와 의미를 깊이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학습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해 매체가 발달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과 정보의 수용을 배워야 할 필요가 생겼고 이러한 언어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학습활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현대소설 단원 중에서 학습활동 문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개정된 16종의 고등학교 교과서 중 5종의 교과서에서 6편의 학습활동을 분석하였다. 이청준의 <눈길>과 김유정의 <봄봄>을 제재로 수록한 교과서를 선택하였고, 앞서 간략히 밝힌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한 특징에 따라 5가지의 기준을 세워 학습활동의 반영양상을 살펴보았다.

학습활동 내용과 문항들을 분석한 뒤엔 네 가지의 지속시키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통해 학습활동의 방향성을 생각해보았다. 자기 주도 학습을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활동, 내면화의 구체화를 실현한 학습활동, 문학의 생활화를 지향한 적용중심 활동, 작품내용의 이해와 학습목표와의 연계이다.

학습활동의 문항의 내용이 의도하는 바에 대한 맥락을 학습활동의 문항마다 충분히 제시하여 교사의 설명식 풀이 형태를 지양하고자 하였다.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능동성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

다. 또한 깊은 내면화를 위해 작품 해석 뿐 아니라 학습자의 삶과 경험 또한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을만한 문항이 더욱 개발되어야 할 필요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문학과 삶의 실제적인 연결을 위한 적용활동의 심화와 연구의 필요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작품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 목표를 성취해나간다면 더욱 풍부한 작품의 수용과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서론에서는 연구목적 및 필요성과 방법,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II장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과 교수-학습방법을 통하여 학습활동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III장과 IV장에서는 학습활동을 분석하고, 분석한 사례를 바탕으로 개정된 교과서의 학습활동 반영 양상을 정리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선행연구검토	5
3. 연구범위와 방법	8
II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성과 소설교수·학습방법	14
1. 2009 개정 교육과정 문학 영역의 특성	14
2. 소설교수·학습방법과 학습활동의 방향	24
1) 내면화를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	25
2) 반응중심 교수·학습방법	30
3) 대화중심 교수·학습방법	33
III . 2009 개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학습활동 분석	38
1. 이청준의 <눈길>을 수록한 교과서 학습활동	38
2. 김유정의 <봄·봄>을 수록한 교과서 학습활동	86
IV . 사례분석을 통한 학습활동 반영양상과 개선방안	105
1. 사례분석을 통한 학습활동 반영양상	105
1)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학습목표와의 상관성	105

2) 맥락의 이해를 고려한 작품 수용	106
3) 실천적 내면화를 지향한 작품 수용	109
4) 지식·기능·맥락을 통합한 문학 작품의 생산성 지향	110
5) 다매체 활용을 통한 작품의 수용과 생산	110
2. 학습활동 개선방안	111
1) 자기 주도 학습을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활동	112
2) 내면화의 구체화를 실현한 학습활동	113
3) 문학의 생활화를 지향한 적용중심 활동	114
4) 작품내용의 이해와 학습목표와의 연계	115
IV. 결론	117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문학은 인간의 정서와 삶의 모습을 반영한다. 우리는 한 편의 문학작품을 통해 인간의 다채로운 정서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 생활상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작품의 수용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 및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넓은 세계에 대해 인식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문학이란 그 생산의 주체인 인간과 인간의 삶과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매우 ‘인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학이 인간적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역사와 철학 등 이념적 차원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심오한 정서와 함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서사화한 ‘소설’이란 장르 때문일 것이다. 한 편의 소설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독자는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을 떠올리기도 하고, 문학 속 타인의 정서와 삶을 상상력을 통해 체험하면서 자신이 자신을 둘러싼 이 세계와 인간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한 독자의 내면과 소설 속 인간의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기 위한 과정들이 독자 안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소설을 어떻게 수용해나갈 것인가’의 물음이 참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소설을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관련지어 읽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용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소설 교육은 예술적 체험의 확대와 문학적 향유 능력의 배양이라는 목표와

함께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이해와 인간적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등을 그 목표로 한다.¹⁾ 이에 따라서 2009 개정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심화선택 과목인 <문학> 학년별 내용에서 10학년의 성취기준에서도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발견” 하고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문학을 단지 문학적인 지식의 습득과 작품 분석에 치우쳐 삶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을 통하여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내면화할 수 있도록 수용할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학습자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소설을 교육하는 것은 학습자의 구체적인 경험을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소설교육은 학습자가 자기의 경험을 스스로 이해하게 하고 학습자의 구체적인 경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²⁾ 또한 소설 교육은 학습자의 문학 능력을 증진시켜, 문학적 체험이 실제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자기 성찰과 새로운 자기 형성을 함양하는 것이 될 필요가 있다.³⁾

소설을 삶과 밀착시켜가며 읽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소설교육 혹은 소설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설의 이론적인 면을 습득하는 것 못지않게 현장에서의 실천적인 면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다. 소설교육이 학습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설 제재를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된 실천적인 학습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 구인환 외(1988). 『문학교육론』. 삼지원, 280쪽.

2) 장운의(2004). 「학습자 활동 중심의 국어과 소설 지도 방안 연구 : 10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3) 선주원(2009). 『소설교육의 원리와 방법』. 새미, 30쪽.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현대소설 단원 중에서 학습활동 문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육내용을 학생수준에 맞게 선정 조직하고 제시한 내용의 제공서이며 해설서이다. 추상적인 교육과정을 교수·학습 자료 수준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교육과정이 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을 계획 수준에서 스케치한 것이라면, 교과서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그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교육과정에 접근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구상화라고 비유할 수 있다. 교과서는 다양한 글 자료와 질문, 활동 과제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목표를 수업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해준다.⁴⁾ 다시 말해 교과서는, 학교 교수·학습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자료로서 교육 공동체의 이념과 목적을 포함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교과서의 구성에서 이러한 부분을 가장 구체적이면서 실천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학습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징 중에 중요시되고 있는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이라는 실천적인 측면과 학습자의 적극적인 문학 표현 활동을 강조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학습자로 하여금 텍스트의 능동적인 수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생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능하는 학습활동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학습활동을 통해 읽은 텍스트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평가해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활동과 적용을 통하여 텍스트를 소화하고 작품을 내면화하며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즉, 문학의 생활화⁵⁾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텍스트의 독해를 통해 이해한 내

4) 최미숙(2008) 외,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50쪽.

5)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2』, 415쪽.

용을 질문과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활동의 형태로 제시한 자료를 통해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⁶⁾

따라서 교과서의 구성과 교수·학습 방법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학습활동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뀐 후 7차 교육과정 때와는 다르게, 교과서의 수가 더욱 많아지고 다양해진 학습활동을 검토해보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연구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될 예정이며, 또한 국어 교과서를 제외한 2009 개정 선택과목의 교과서들이 곧 편찬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국어교과서의 학습활동을 분석한 뒤 지속, 개선시켜야 할 부분들을 되짚어보는 작업은 다소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교육과정에 앞서 국어교과서의 방향성을 점검해보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는 먼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학습활동 분석의 기준을 정한 뒤 학습활동이 실제 교과서에서 그 기준들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분석 후 개선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문학을 읽고 감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문학적으로 이해하고 말하고 쓰는 언어 활동을 강조하는 것이며 전문적인 작가가 되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다.

- 6) 지현정(2006), 「중학교 국어교과서 문학단원 학습활동의 분석적 고찰: 소설제개 8점 중심으로」,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쪽.

학습활동은 교수 학습 방법의 제시 기능, 학습 동기 유발 기능, 연습을 통한 기능의 정확 기능, 평가 자료 등의 기능을 지닌다. 교사는 학습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의 심리적, 지적 상태를 고려하여 좌절감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문제 해결의 전략 등을 단계화하여 제시하고, 학생은 각자에게 부여된 과제들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

2. 선행연구검토

지금까지 크게 소설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크게 나누어 살펴보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문학의 본질적인 의미를 추구하면서 소설 교육 전반에 걸친 이론을 제시하려고 했던 관점⁷⁾과 두 번째로 실제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현황을 제시하고 문제점 및 대안방안을 모색하려는 관점⁸⁾이다. 이에 따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수업 모형이나 교수·학습 지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교과서의 학습 내용은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했으며, 교과서의 학습활동도 기존의 연구들이 실제적인 교육의 지침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된 후로는 교과서에 실린 제재를 분석하는 연구도 이루어졌으며 더 나아가 학습활동의 문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들도 조금씩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국어과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대한 연구에 비해서는 학습활동만을 다룬 연구는 다소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논의들 중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처럼 국어교과서의 학습활동만을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다음과 같다.

신정숙⁹⁾(1998)은 6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과서에 실린 소설 제재의 학습활동을 분석하였다. 이론의 암기 위주의 문학 교육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학습활동의 문항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논의하였으나 뚜렷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숙형¹⁰⁾(2000)은 교과서에 실린 소설 제재 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학

7) 문학교육의 본질적인 의미를 추구하며 소설 교육 전반에 따른 이론을 연구한 관점으로 구인환(2000), 김대행(1982), 김운식(1984), 김인환(1979) 등이 있다.

8) 소설교육의 효과적인 지도방안과 수업 모형을 제시하려고 했던 연구는 구인환(1999), 손소희(1985), 제주연(1997) 등이 있다.

9) 신정숙(1998), 「고등학교 국어 평가 문항고찰」,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제1권.

습활동의 내용 체계면과 적절성 여부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학습활동 문항 분석에 대한 연구보다는 소설 제재의 적합성에 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7차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활동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들은 조금씩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분석의 기준이 학습활동이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세운 학습목표에 부합하는지’와 같은 단일한 기준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으로 문항을 분석한 뒤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더욱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장선덕11)(2002)은 국어교과서에 실린 학습활동의 내용을 정리하며 학습활동이 국어교육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제대로 제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사고력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적절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신용옥12)(2003)은 소설 7편의 작품을 바탕으로 학습활동에 포함된 문항들 속에는 소설제재에 대한 어떤 수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충실하게 짜여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의 달성 여부가 분석의 초점으로 맞춰져있으며 구체적인 문제점을 바탕으로 뚜렷한 개선방안을 세우지는 못했다.

손인규13)(2005)는 7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습활동이 7차 교육과정의 정신에 적합하고 국어과의 목표성취를 위한 내용과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인 ‘과정중심’의 내용에 따라 학습활동을 읽기 전, 읽기 중, 읽은 후의 활동으로 나누어 연구한 것이 인상적이다. 그러나 위의 연구

10) 이숙형(2000). 「중학교 국어교과서 소설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1) 장선덕(2002). 「제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 '학습활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2) 신용옥(2003). 「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 소설 제재 '학습활동' 분석」,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3) 손인규(2005). 「중학교 국어 교과서 소설단원 '학습활동' 분석」,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와 마찬가지로 학습활동이 학습목표의 반영여부라는 단일한 기준에 의해 분석되어 폭넓은 의견을 찾기는 힘들다는 한계를 지닌다.

고형진 14)(2005)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가운데 현대시와 소설 단원의 학습활동에 나타난 문제점과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7차 교육과정과 '문학' 단원에서 특히 학습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제점을 면밀하게 밝혀보고자 하였다. 또한 학습활동의 풀이를 담은 '교사용 지도서'에 어떤 문제점과 오류가 있는지를 지적하였다.

지현정 15)(2006)은 소설 6편을 중심으로 교과서에 실린 소설제재의 학습목표와 교육 과정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를 밝히고, 학습활동의 내용이 학습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물음인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학습활동을 분석하기에 뚜렷한 기준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단원별 분석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경선 16)(2009)은 소설 제재 단원에 제시된 학습활동의 내용들이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물음인지 분석하고, 내용과 학습목표가 소설작품의 학습에 효과적인지 살펴보았다. 학습활동이 7차 교육과정의 정신에 적합하고 소설의 일반적인 학습 목표 성취를 위한 내용과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학습활동의 중요성이 논의되면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왔는데 7차 교육과정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체제가 바뀌었고, 이어서 새 교육과정에 맞춘 학습활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 바뀐 교육과정의 내용과 교과서에 실린 학습활동의 반영양상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

14) 고형진(2005).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학습활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시와 소설 단원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18호.

15) 지현정(2006). 「중학교 국어 교과서 문학 단원 <학습활동>의 분석적 고찰 : 소설 제재 6편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6) 김경선(2009).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학습활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소설단원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한 국정교과서에서 검정교과서 체제로 바뀐 후 교과서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다양한 교과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들이 교과서에 실린 제재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학습활동 문항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문제점을 고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듯이, 이어서 개정된 교과서의 학습활동 문항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연구범위와 방법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검인정 16종의 국어 교과서가 새로 편찬되었다. 단일한 국정교과서를 사용했던 7차 교육과정 때에 비하면 교과서의 종류가 많아졌으며 개정된 교육과정의 같은 성취기준을 다루면서도 그 내용과 구성에 있어 출판사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 때의 단일한 국정교과서로는 정보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언어 환경의 급격하고도 새로운 변화들을 다 담아낼 수 없는 한계가 지적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정의 개정과 국어교과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큰 원인이 되었다.

본고는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여러 국어 교과서에 실린 현대소설의 학습활동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이청준의 ‘눈길’과 김유정의 ‘봄봄’ 두 작품이 실린 교과서를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16종의 교과서에 다양한 현대소설이 실렸지만 두 작품은 7차 교육과정의 국어교과서에서도 수록된 작품으로써 문학적 교육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였고, 이청준의 ‘눈길’은 16종 중 4종에 학습활동을 포함하여 실려 있는 작품으로 다른

작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록빈도가 높은 편에 속하기에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청준의 '눈길'은 미래엔 컬처그룹상, 비상교육상, 지학(박)下, 천재(김대행)下에 수록되어 있고 김유정의 '봄·봄'은 디딤돌상, 지학(박)上, 천재(김대행)下에 수록되어 있다.¹⁷⁾ 따라서 이청준의 '눈길'과 김유정의 '봄·봄'을 중심으로 합쳐서 총 5종의 교과서 중 6편의 학습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기준의 첫 번째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¹⁸⁾의 내용을 교과서의 학습목표에서 잘 구현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교과서의 학습목표를 학습활동에서 잘 반영하여 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교과서는 교재의 가장 정형화된 형태로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일정한 원리에 따라 선정·조직한 제재들의 유기적 구성물¹⁹⁾이다. 다시 말하자면,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의 해석하고 반영한 학습 교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따라 교과서의 학습 목표가 정해지고, 학습 활동의 내용이 학습 목표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문학' 학습은 문학 작품을 찾아 읽고 해석하며, 문학 작품을 생산하는 학습 활동을 함으로써 작품에 나타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상상력이 향상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문학적 상상력의 향상이 문학을 학습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러한 능력은 작품에 대한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해석 활동과 작품 창작 활동을 통해서 길러진다고 본 것이

17) 김유정의 '봄·봄'이 지학(박)上 에는 단원 끝에 '작품 더 읽기'에 속한 작품으로 학습 활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8) 학습자가 국어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할 국어 능력의 내적, 외적 특성을 의미한다.

19) 이상형(2001), 『국어교육학』, 소명출판, 333쪽.

다.20)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문학 작품의 능동적이고도 주체적인 ‘수용’ 과 작품의 실제적인 ‘생산’ 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차 교육과정까지 많은 학생들은 교사의 주도 아래, 교사가 불러주는 주제를 받아 적거나 참고서에 제시된 주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문학을 감상하고 해석하였다. 이런 문학 교육은 문학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주체적인 이해와 감상 과정을 등한시하면서 많은 비판에 부딪혔고,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부터 창작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독자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창작교육은 강조되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문학 작품 해석 교육이 소홀히 이루어졌다.21) 2009 개정 교육과정 ‘문학’의 내용에서 내용체계에 나와 있는 ‘문학 활동’ 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그 중 ‘문학의 수용’ 부분에서 세부항목으로

-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평가한다.
- 이해와 감상 및 평가의 결과를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내면화한다.22)

등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문학작품을 해석하고 능동적인 문학 작품의 수용자가 되기 위해 학습활동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학습활동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두 번째로 읽기 전·중·후 학습활동들이 작품을 섬세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지, 작품과 관련되는 다양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겠다. 문학 작품을 그 자

20)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2 국어』, 17쪽.

21) 최미숙 외(2008),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918쪽.

22)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2 국어』, 401쪽.

체만이 아니라 관련되는 다양한 맥락에서 섬세하게 읽고 이해, 감상,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문학 수용 능력의 주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수용자가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작품에 작용하는 관련 맥락과 함께 고려할 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관련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내용과 형식 또는 표현의 유기적인 연관을 고려하며 섬세하게 읽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²³⁾ 따라서 학습활동들이 작품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작품을 섬세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작품과 관련되는 다양한 맥락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²⁴⁾ 궁극적으로 작품의 맥락²⁵⁾에 대한 이해는 학습자로 하여금 문학 수용의 흥미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문학 수용의 결과를 내면화할 수 있는 창의적이면서도 실천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보겠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학 교수·학습 지도에서는 작품을 학습자의 삶과 관련지어봄으로써 심미적 상상력과 건전한 심성을 계발하고 바람직한 인생관과 세계관 형성을 돕는 학습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즉 문학 수용으로 얻어진 가치 있는 결과는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내면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문학 수용 결과가 누적된다면 독자는 문학 감상을 통한 즐거움에서 나아가 인성과

23) 위의 책 402쪽.

24) 위의 책 402쪽.

작품의 이해·감상·평가는 수용자가 작품의 문면에 유의하면서 작품에 작용하는 다양한 맥락을 함께 고려할 때 제대로 이루어진다. 즉 작품의 수용은 작품에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이나 다양한 상호 텍스트적 맥락을 고려하고 활용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 관련 맥락들은 작품의 섬세한 읽기 과정에서 그 근거가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5) 위의 책, 19쪽.

맥락은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한다. 상황 맥락은 담화와 글을 수용,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맥락으로 언어 행위 주체(화자·필자, 청자·독자), 주제, 목적 등을 포함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은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맥락으로 역사적·사회적 상황, 이데올로기, 공동체의 가치, 신념 등을 포함한다.

교양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독자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로 확대되어 공동체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습활동은 작품 수용을 통해 얻은 가치와 깨달음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을 지향한 활동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 해설서는 “이들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문학 수용의 결과를 일상적 경험과 연관 지어 해석하고, 작품이 다른 가치가 자신의 삶과 관련되는 의의를 탐색하며 토의와 토론을 통해 작품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²⁶⁾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학습활동이 문학 수용의 결과를 내면화할 수 있는 창의적이면서 실천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학습자의 삶과 연결되어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

네 번째로, 학습활동이 구체적인 생산으로 귀결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4차에서 6차 교육과정까지 국어 교육에서 창작 교육은 도외시 되어 왔는데, 문학교육이 고급 문학을 생산하는 작가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기에 모든 학생을 작가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서야 창작 활동이 특별한 재능을 지닌 작가들의 영역만이 아니라 일상인들도 자신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정서나 감정을 창작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변화하였다. 다시 말해, 작가가 되기 위함의 목적보다 언어 표현의 능력을 함양시키고 작품의 인식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²⁷⁾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는 창작활동이 단지 뛰어난 예술작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문학에 관하여 의견을 말하는 것 등으로 창작의 개념이 ‘생산’으로 확대된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문학 표현 활동을 강조하기 때문에

26) 위의 책 409쪽.

27) 위의 책 321쪽.

‘문학적인 글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만들었는지’를 분석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다섯 번째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에 참여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정보와 매체의 발전으로 인해 정보와 지식의 습득 및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매체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와 지식 문화의 수용과 생산에 대해 이해하는 활동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렇게 언어 환경 변화에 따라 국어 학습도 변화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활동이 사회의 변화와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다매체적 학습활동으로 구성되어있는지,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영상 매체, 전자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한 문학의 생산과 수용에 참여하였는지 등을 확인해보겠다.

앞의 분석 기준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의 내용을 교과서의 학습목표에서 잘 구현하고 있는가, 교과서의 학습목표를 학습활동에서 잘 반영하여 구성하였는가.
- ② 학습활동들이 작품을 섬세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작품과 관련되는 다양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발견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는가.
- ③ 문학 수용의 결과를 내면화할 수 있는 창의적이면서도 실천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었는가.
- ④ 지식과 기능, 맥락이 통합되어 문학적인 글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만들 수 있는 적용 가능한 학습활동인가.
- ⑤ 사회의 변화와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에 참여하였는가.

Ⅱ.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성과 소설교수·학습방법

1. 2009 개정 교육과정 문학 영역의 특성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학’ 과목은 문학의 수용과 생산의 실천 활동을 강조했다. 문학의 수용 활동과 생산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언어예술로서의 문학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향유하고 모국어를 발전시키며, 나아가 인간다움을 성취하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이 예술로서의 문학을 실현하는 것이자 동시에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인간의 삶과 관련한 공동체의 의제를 문학적으로 성찰하고 소통하는 실천 활동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한다면 문학은 학습자의 삶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²⁸⁾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문학 향유의 즐거움을 스스로 누릴 수 있고 문학과 함께 일상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문학의 생활화’²⁹⁾까지 나아가는 것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문학의 성격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심화 선택 과목 <문학>의 성격에 함께 <문학> 과목의 목표를 세 가지 항목의 목표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8) 위의 책 392쪽.

29) 김대형(2001). 「문학 생활화의 패러다임」, 『문학교육학』 제7호, 한국문학 교육학회.

문학을 생활화한다는 말은 일상의 삶을 문학과 함께 영위한다는 뜻이다. 음식, 의복, 공기, 사람 등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다. 이처럼 꼭 필요한 음식, 의복, 공기, 사람 등의 자리에 문화도 나란히 놓자는 것이 문학 생활화의 지표다. 바꾸어 말하면 문학과 더불어 아니고서는 인간으로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음식이 없이는 영양실조에 빠지듯이, 옷이 없이는 생존이 어렵듯이, 공기가 없게 되면 질식하고 말듯이, 사람들이 없고서는 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문학 없이는 인간이기 어렵다. 그러니 문학과 함께 인간답게 살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1) 목표

문학의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기르며, 자아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 가. 문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능동적으로 문학 활동을 한다.
- 나.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하여 언어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 다. 문학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향유 하며,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³⁰⁾

목표 ‘가’ 항목은 문학에 대한 지식, 문학 경험 등 능동적인 문학 활동이 주요 내용이다.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학 경험이 학습자와 문학수용 사이에 긴밀한 소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객관적인 이해 대상으로서의 문학만이 아니라,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모든 과정이 의미 있는 하나의 경험으로 인식되기 시작할 때 학습자는 문학 활동에 있어 더욱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목표 ‘나’ 항목은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중요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부터 창작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문학 작품의 수용과 창작’이 중심 교육이 되었고 이는 학습자의 적극적인 문학 표현 활동을 중요시하는 흐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것, 문학에 관하여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창작’의 개념을 ‘생산’으로 재개념화하였다. 작품에 관련된 다양한 응용활동도 문학 활동에 포함한 것이다.

30)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2 국어』, 999쪽.

생산적인 문학 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적극적인 문학 활동이 '언어에 대한 통찰력' 신장에 기여함을 밝혔다.

목표 '다' 항목은 문학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문학의 가치와 아름다움의 향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참여하기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학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문학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고 이는 문화의 발전과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 비하여 문학의 능동적인 수용과 실천적인 생산 활동을 더욱 강조하며 생산의 범위를 확대한 것과, 개인의 경험을 살려 문학을 수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뤘음을 살펴 볼 수 있다. 개인의 삶과 문학이 긴밀히 연결되기 시작할 때 학습자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에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문학 향유의 즐거움으로 발전되어 '문학의 생활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각 개인에게 문학 향유가 하나의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는다면 개인을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와 문화의 발전이 가능해지리라 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의 생활화'가 평생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학의 내면화를 중요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목표로 미루어 볼 때 학습활동은 구체적이면서 실천적인 '작품의 생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용 가능한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며, 작품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질문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을 생각해볼 수 있다.

(2) 2009 개정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내용 체계(문학)

작품의 수용과 실제	
-시(시가) -소설(이야기) -극(연극,영화,드라마) -수필 비평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의 본질과 속성 • 문학의 양식과 갈래 • 한국 문학의 역사 	수용과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이해 • 감상과 비평 •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 작품 창작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 생산의 주체 • 사회 ·문화적 맥락 • 문학사적 맥락 	

[표1]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문학 영역 내용 체계

문학 영역의 내용을 일차적으로 ‘지식’, ‘수용과 생산’, ‘맥락’으로 나누고 그 내용이 ‘작품의 수용과 생산의 실제’와 관련되도록 구조화 하였다. 특히 ‘지식’, ‘수용과 생산’, ‘맥락’의 경계선을 점선으로 처리하였는데, 서로 분절된 채 독립된 영역인 것이 아니라 각 내용을 서로 깊이 있게 관련하여 교육해야함을 강조하였다.

내용 선정 범주인 지식과 기능, 맥락을 규정하고 통어하는 범주로 ‘실제’ 범주를 설정하였다. 작품의 생산과 수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식과 기능, 맥락이 통합, 교섭되는 경험을 하도록 내용체계를 구성하였는데 7차 교육과정 때는 ‘실제’ 범주가 본질(지식), 원리(기능), 태도를 익히는데 활용되고 참고해야 할 자료였던 것에 반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실제’가

교육 내용을 규정하고 통어하는 원리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2009 개정 심화 선택 교육과정 내용체계 (문학)

문학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의 개념 ◦ 문학의 역할 ◦ 문학의 갈래
문학 활동⁹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의 수용 ◦ 문학의 생산 ◦ 문학의 소통
문학의 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과 문화 ◦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
문학과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과 자아 ◦ 문학과 공동체 ◦ 문학의 생활화

[표2]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문학 내용 체계

선택과목으로서의 ‘문학’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문학’영역을 심

91) 위의 책 401~406쪽.

(가) 문학의 수용

- ① 내용, 형식, 표현의 유기적인 연관을 고려하여 작품을 수용한다.
- ②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 ③ 이해와 감상 및 평가의 결과를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내면화한다.

(나) 문학의 생산

- ① 내용과 형식, 맥락, 매체를 바꾸어 작품을 비판적·창조적으로 재구성한다.
- ②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작품을 생산한다.

(다) 문학의 소통

- ① 작가 작품 독자 및 생산 유통 수용의 역할과 틀을 이해한다.
- ② 다양한 매체를 통한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에 참여한다.

화·발전시킨 과목이다. 교육내용으로 ‘문학의 성격, 문학 활동, 문학의 위상, 문학과 삶’을 선정하였다. 문학의 본질에 대한 지식 목표를 추구하는 ‘문학의 성격’, 수용과 생산 그리고 소통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문학 활동 능력 목표를 추구하는 ‘문학 활동’, 문학의 실제적 양상에 대한 이해를 지향하는 ‘문학의 위상’, 그리고 문학이 자아, 공동체,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학습할 수 있도록 ‘문학과 삶’의 네 영역을 설정하였다. 이 중 특히나 학습활동이 지향해야 할 바와 가장 구체적이면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문학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이른바 문학의 본질 요소를 지식과 원리 차원에서 학습하는 것이라면, 문학 활동은 문학교육의 중핵 내용에 해당한다.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철학을 문학과목에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 주며, 이는 학습 주체의 능동적 경험과 소통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소통의 국면을 문학교육이 강조하는 것은 문학 현상의 외적 생태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환경과 문학교육과의 생산적 호응을 의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2)

(4) 2009 개정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학년별 내용 성취기준,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 내용 요소의 예) 문학 10학년

	<p>①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발견한다.</p> <p>【내용 요소의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의 효용에 대해 이해하기 ◦ 작품 읽기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토론하기 ◦ 작품을 읽고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하기
--	--

32) 구인환 외(2007). 『문학교육론 5판』. 평민사, 198쪽.

10학년	<p>【작품의 수준과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작품 ◦ 인물의 내면세계나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작품 ◦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 <p>② 문학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한다.</p> <p>【내용 요소의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성격, 취미, 인생관 등이 드러난 부분 찾기 ◦ 작가의 개성을 자신의 체험에 비추어 이해하기 ◦ 여러 작가의 작품을 읽고 성격, 취미, 인생관 등을 비교하기 <p>【작품의 수준과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 ◦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작품 ◦ 인물의 내면세계나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작품 <p>③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p> <p>【내용 요소의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문제 상황에 대한 문학적 해결 방안 이해하기 ◦ 문학을 통한 자신의 삶과 주위 세계 성찰하기 ◦ 문학 작품의 의의를 인간의 삶의 문제 속에서 파악하기 <p>【작품의 수준과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작품 ◦ 인물의 내면세계나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작품 ◦ 비평적 안목이 뛰어나거나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비평문 ◦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
------	---

<p>④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적 안목을 갖춘다.</p> <p>【내용 요소의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평은 작품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임을 이해하기 ◦ 작품에 대한 판단의 근거 마련하기 ◦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비평문 쓰기 <p>【작품의 수준과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작품 ◦ 인물의 내면세계나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작품 ◦ 비평적 안목이 뛰어나거나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비평문 ◦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 <p>⑤ 수용과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p> <p>【내용 요소의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적 전통의 개념과 의미 파악하기 ◦ 과거의 문학적 전통과 오늘날의 문학적 전통 비교하기 ◦ 문학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다양한 작품 감상하기 <p>【작품의 수준과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평적 안목이 뛰어나거나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나 비평문
--

[표3]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10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기준과 작품의 수준과 범위

무엇보다도 2009 개정 교육과정 <문학> 영역에서는 앞서 내용체계에서도 살펴봤듯이 지식과 수용과 생산, 맥락이 통합되어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의 실제에 이를 것을 강조하였다. 학습자로 하여금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문학 표현 활동을 해나갈 것을 강조한 것이다. [표1]을 보면 ‘작품의 수용과 생산의 실제’에서 ‘영화, 드라마,

비평'을 새로 넣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매체 언어에 관련된 내용을 도입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 장르였던 시나 소설, 수필 뿐 아니라 드라마, 연극이나 영화 대본 등도 제재로 활용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

[표8]을 보면 성취기준 뿐 아니라 10학년에서 다루어야 할 제재를 '작품의 수준과 범위' 항목으로 제시하였고, 내용요소의 예를 통하여 성취기준에서 다른 내용을 더욱 상세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보다 교육과정에서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적용하기 수월하고 실천 가능한 형태로, 수업현장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지 명료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5) 교수·학습 방법

나. 교수학습운동

- (1) 내용 체계의 '문학의 성격'과 '문학의 위상'을 구체적인 '문학 활동' 및 '문학의 생활화'와 관련지어 이해하고, 문학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향유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 지도한다.
- (2)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개인과 공동체 차원의 문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 (3) 작품은 이상적인 전범이 아니라 교수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 변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 (4) 작품의 수용과 생산에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 (5) 작품의 수용 활동은 발표, 토의 토론, 협동 학습, 현장 학습, 감상문과 비평문 쓰기, 문학 갈래와 매체의 변환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6) 작품의 생산 활동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발표, 토의 토론, 협동 학습 모작, 재구성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되, 학습자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도록 지도한다.

(7) 문학 활동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포함한 언어활동, 매체 활동 및 다양한 반어적 비언어적 표현과 통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8) 학습자의 심리적, 문화적 요구에 부합되는 작품과 교수 학습 활동을 활용하여 문학 이해의 폭을 넓히고 수용 및 생산의 밀도를 높이도록 지도한다.

(9) 문학을 생활화하여 평생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면교육과정에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표4]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 과목의 교수학습 방법 중 나. 교수·학습 운용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수·학습 운용에 따라 교과서가 포함해야 할 학습활동의 구체적인 형태로는 학습자 중심의 토의와 토론, 협동 학습, 현장 학습, 감상문과 비평문 쓰기, 작품의 재구성, 다양한 매체활용 활동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학 활동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모두 통합하는 활동이어야 하므로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지시하는 학습활동의 물음이 구체적으로 네 가지의 영역을 통합하여 제시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교과서는 문학 작품과 관련된 맥락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며, 학습활동의 구체적인 물음들이 학습자의 삶과 관련되어 스스로 문학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문학 활동’이라는 것이 교사의 주도 하에 주어진 해설을 암기하는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문학과 학습자에 심리적인 괴리감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학습’의 형태로만 인식되게 하였다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학습활동은 무엇보다 학습자 스스로가 문학과 친해지며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성을 느끼고 문학을 즐겨워하도록 하는 것에 초

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2. 소설교수·학습방법과 학습활동의 방향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학습활동’에 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비판적 고찰을 통한 문제점 제기와 개선되어야 할 학습활동의 방향에 대한 부분적인 논의는 있지만, 교수·학습 방법에서 더 나아가 교과서의 학습활동 자체에 대한 이론과 구체적인 연구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오랫동안 문학교육은 강독식 교육방법을 택해왔고³³⁾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문학 감상과 창작활동은 배제되어 왔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이해와 감상을 주로 한 사고력을³⁴⁾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론의 암기를 위주로 한 지식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학 교수·학습방법 또한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적용하고자 노력해왔다. 이 장에서는 먼저 문학 교수·학습 방법 중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인식 하에 마련된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과정 또한 기존 문학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좀 더 본질적인 소설교육의 목표³⁵⁾에 도달하기 위해 새

33) 김창원(2006), 「문학교육의 성격과 문학 교과서의 지향, 제7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점검과 논의」, 『국어교육학 연구』 제27집, 210쪽.

문학텍스트와 문학 활동에 대한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 이미 7차 교과서에서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은 물론이고 만화 대중가요 개그 등이 활동자료로 도입되었다. 또한 노래하기 그림그리기 연극 놀이하기 등의 다양한 활동 역시 수업 차원이 아니라 교과서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일종의 고명 역할을 할 뿐, 문학 수업의 주류는 여전히 강독 중심이다.

34) 최미숙 외(2008),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318쪽.

교사는 전문적인 연구자들에 의해 결정된 해석 내용을 그대로 전수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암기하는 수업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비판력도 창조력도 없이 그저 교과서 내용과 선생님 설명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외우는 수업을 했던 것이다. 작품을 읽는 실질적인 능력보다는 단편적인 지식이나 이미 정해진 작품 해석을 강조하는 이러한 교육방식은 선택형 평가 방식과 결합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35) 우한용 외(1999), 『소설교육론』, 평민사, 77쪽.

소설교육의 목적은 소설의 감상과 이해를 심화시키고 내적 체험으로 내면화시키는 데 있다. 소설을

롭게 정립되었다면, 기존의 이론화된 교수·학습 방법 또한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대표적인 교수·학습 방법과 앞서 살펴본 교육과정의 내용을 통해 개정된 국어교과서의 학습활동의 방향성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1) 내면화를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

내면화를 고려한 문학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구인환 외(2007)가 제시한 문학 수업 절차 모형을 들 수 있다. 이 모형은 이전에 국어 교육에서 일반화되어 있던 ‘계획→진단→지도→발전→평가’의 5단계 모형 이후 문학 교육의 특성을 살린 교수·학습 모형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문학 작품의 장르적 특성에 맞는 각종 활동을 제시한 교수·학습 모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6)



I. 계획 단계

1. 수업 목표 설정
2. 교육내용으로서의 텍스트 분석

등에서 정의적인 감동과 인지적인 자각에 의해 소설 텍스트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학생을 인도하는 것이 소설교육의 핵심이다.

36) 최미숙 외(2008),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342쪽.

3. 부수자료 선정(비평텍스트, 감상텍스트, 텍스트 배경자료)

4. 평가 목표 설정

Ⅱ. 진단 단계

1. 소설에 대한 사전 지식 진단

2. 텍스트와 관련된 선체험 진단

(1) 내용과 관련된 생체험 진단

(2) 양식과 관련되는 미적 체험 진단

Ⅲ. 지도 단계

1. 텍스트에 대한 개괄적 접근

(1) 작품 읽기

(2) 인물 사건 배경의 파악

(3) 관련 경험의 재생과 경험의 교환

2. 텍스트에 대한 분석적 접근

(1) 텍스트의 창작배경 파악

(2) 플롯과 스토리의 관계 파악

(3) 텍스트의 갈등구조 파악

(4) 서술방식과 주제와의 관련성 파악

(5) 소설의 제요소간의 관련성 파악

(6) 소설적 세계와 인물에 대한 심화된 이해

3. 텍스트의 종합적 재구성

- (1) 소설 내 외적 세계의 상호 관계 파악
- (2) 작가와 작중인물의 삶에 대한 자세 이해
- (3) 허구적 세계의 간접체험

Ⅳ. 평가 단계

1. 소설교육 목표와 관련하여 평가 내용범주 정하기
2. 텍스트 본질과 관련하여 평가 방법범주 정하기
3. 평가결과 송환하기

Ⅴ. 내면화 단계

1. 텍스트상호성의 확대
2. 가치화의 지속 및 인식 확충
3. 간단한 소설작품 쓰기 및 텍스트에 대한 평문 쓰기

이 모형에서 제시하는 다섯 단계의 소설수업절차 가운데, 학생과 교사가 문학교실에서 상호작용하는 단계는 Ⅱ단계-Ⅳ단계 과정이다. Ⅰ단계는 수업 전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단계이므로 학생의 직접적 참여가 있는 것은 아니다. Ⅴ단계는 교사의 직접적인 교수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아니라, 학생들이 이미 배운 문학 작품 또는 문학 수용을 자기의 내면으로 가치화, 인격화해 가는 과정이다.³⁷⁾

‘내면화 단계’를 따로 설정하여 마지막 단계에 명시하였지만 ‘내면화 단계’란 단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작품을 읽어나가면서 학습

37) 구인환 외(2007). 『문학교육론 5판』. 평민사, 265쪽.

자는 자신과 관련된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보기도 하고, 깊이 공감하게 되거나 감정적으로 동화하게 되는 것이다. 내면화 과정은 학습자의 의식 속에 잠재된 형태로 형성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수·학습활동을 포괄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인환 외(2007)에 의하면 그러한 이유로 ‘내면화 단계’ 자체를 고려하지 않거나 배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내면화 단계’를 알고 전제하는 문학교사의 수업과 ‘내면화 단계’ 자체를 전제하지 아니하는 문학교사의 수업은, 궁극적으로 질적으로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블룸(Benjamin Bloom :1913~1999)이 교육목표분류학에서 시도한 교육목표 분류설명에 따르면 내면화 과정은 정의적 영역의 속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서, 학습자가 수용한 가치를 개념화(conceptualization)하고,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value system)를 내적으로 조직화하고 그것을 자신의 인격 속에 용해시키는 과정(charactriz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소박하게 생각해서 이 단계에서의 바람직한 활동으로 두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텍스트 상호성’ 38)에 대한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작품을 통해 향수된 특정 가치를 수용자의 전인격 가치체계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들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서, 해당 텍스트를 그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관련 텍스트와 상호 연결하여 읽음으로써, 내면화 과정의 조화로운 형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39)

38) 최현섭 외(2005).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453쪽.

텍스트 상호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문학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문학교육의 방법을 확충해 나가는 것은 문학 수용자인 학생들로 하여금 문학경험을 통해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해석하고 비평하고 설계해 보게 하는 경지로 안내한다. 단일 텍스트 자체를 형식주의적으로만 파고드는 것은 그야말로 ‘문학을 위한 문학’으로 함몰하게 할 위험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텍스트 상호성을 부단히 살피도록 문학교육의 내용을 구성해 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39) 구인환 외(2007). 『문학교육론 5판』, 평민사, 230쪽.

학습활동으로 생각해본다면 ‘적용학습’의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본 수업으로 나간 소설제재와 연관되는 다른 텍스트를 상호연결지어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목표에 따른 내용 이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수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으며 가까운 생활에 적용해 학습자로 하여금 더욱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볼 수 있다.

텍스트 측면에서의 접근과 병행하여 수용자의 실제적 자아의식이나 생체험(生體驗)의 질과 양을 어떤 형태로든 연계 짓는 내용상의 텍스트 상호성도 고려해야 한다.⁴⁰⁾ 2009 개정 교육과정 또한 문학 수용의 결과를 학습자의 일상적 경험과 연관 지어 해석하고, 작품이 다룬 가치가 자신의 삶과 관련되는 의의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수용자 개개인의 자아개념이나 생체험의 특성을 교사가 온전하게 파악한다는 것이 실제 교실 현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으므로 구인환(2007)은 인성, 자아개념, 심리적 환경 분석, 개별체험의 가치 형성유형, 문학체험의 태도변용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각종 표준화 검사도구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내면화를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에서 실제적인 학습활동까지 텍스트 상호성의 원리를 수업활동의 장에 투입하는 텍스트 측면에서의 접근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용자의 개인적 체험과 자아개념의 특성을 고려한 수용자 측면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을 살펴보았다. 수용자 측면에서의 접근은 당장은 교육현장에서 실현되기는 어렵고 꾸준한 연구와 개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과서의 학습활동과 더불어 이러한 도구가 개발되어 함께 활용된다면, 좀 더 구체적이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내면화의 과정을

40) 위의 책 290쪽.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반응 중심 교수·학습 방법

반응 이론에 근거한 소설 수업은 교재나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의 다양한 반응을 존중하는 학생 중심의 심미적 감상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반응 중심 교수·학습 방법이란 학생들이 문학 경험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반응 중심 교수·학습 방법은 주입식·암기식 문학교육에 대해 비판하던 시점에서 문학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중시하는 교수·학습법으로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⁴¹⁾ 그동안 학습자는 문학의 수용원리를 이해하거나 주체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한 감상에서 벗어나 단순 지식중심, 주입식 교육에 따라 아무런 감흥 없이 문학을 대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 초, 작가와 텍스트 중심의 문학교육에서 독자 반응 중심의 문학교육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로젠블래트(R.M.Rosenblatt)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경규진(1993)⁴²⁾이 제안했던 반응 중심 교수·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텍스트와 학생의 거래 > 반응의 형성

(1) 작품 읽기

심미적 독서 자세의 격려

텍스트와의 거래 촉진

41) 최지현 외(2007). 『국어과 교수 학습방법』. 역락, 299쪽.

42) 경규진(1993). 「반응 중심 문학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단계: 학생과 학생 사이의 거래 > 반응의 명료화

(1) 반응의 기록

작과 반응의 교환

(2) 반응에 대한 질문

반응을 명료히 하기 위한 탐사 질문

거래를 입증하는 질문

반응의 반성적 질문

반응의 오류에 대한 질문

(3) 반응에 대한 토의(또는 역할놀이)

작과의 의견교환

소그룹 토의

전체 토의

(4) 반응의 반성적 쓰기

반응의 자유 쓰기(또는 단서를 놓은 쓰기)

자발적인 발표

3단계: 텍스트와 텍스트의 상호 관련 > 반응의 심화

(1) 두 작품의 연결

(2) 텍스트 상호성의 확대

* 태도 측정

1단계(반응의 형성: 텍스트와 학생의 거래)의 초점은, 학생들로 하여금 심미적 독서를 하도록 격려하고, 작품을 읽기 전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읽기에 앞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형성하게 한 다거나 어렵고 낯선 어휘와 표현으로 인하여 읽기의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낯선 어휘와 어려운 표현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 주어야 하며, 독자와 일차적 만남이 즐거울 수 있도록 초점을 둔다.

2단계(반응의 명료화: 학생과 학생 사이의 거래)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문학적 반응이 무엇인지 알고, 문학적 반응을 다듬고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학생과 학생 사이의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작품을 읽은 후 동료 집단과의 집단적 반응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도록 도와줄 수 있고 더 나아가 학생들의 자기 성장을 도울 수 있다. 특히 반응의 기록은 독서 후에 간단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아무 간섭 없이 자신의 반응을 응시하고 성찰하기 위한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반응에 대한 질문이나 반응에 대한 토의, 반응의 쓰기 역시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주요 학습 활동이다.⁴³⁾

3단계(반응의 심화: 텍스트와 텍스트의 상호 관련)는 자신이 읽은 작품과 다른 작품을 비교하며 읽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계는 앞서 짚어봤던 학습 활동의 '적용학습'의 예와 비슷한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작품과 비교하며 읽음으로써 학생들의 반응을 풍부하게 할 수 있고, 학습자로 하여금 이해한 내용 외에도 더 큰 범주로 확대하여 사고할 수 있게 한다.

소설 교육은 단순히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데서 탈피하여 학습자가 작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도록 하고 그것을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발전

43) 최미숙 외(2007).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343쪽.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심미적인 독서로 인해 개별 작품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보고, 학습자가 자신의 소질에 따라 자신의 반응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감상 활동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반응과 비교하여 확장하기 위한 교수학습의 형태를 적극 수용하여 학습자의 소설 반응을 존중하고 그 반응의 임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문학작품의 감상력을 발달시키고 자기 자신의 반응을 성찰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44)

3) 대화⁴⁵⁾ 중심 교수·학습 방법

문학작품을 읽고 감상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현실세계 속을 살아가는 현실적 존재로서 작품을 읽기도 하지만, 문학 작품의 세계 속에서 대상에 이입된 상태의 공감적 존재로서의 모습도 지니게 된다. 즉, 두 자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문학 수용의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실적 자아와 공감적 자아가 대화하는 이 과정은 개인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대화이며, 이 대화가 깊을수록 문학의 내면화가 충실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문학교육이라면 그 내용설계에 있어서 이러한 대화의 과정이 활발하고 충실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내적인 장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또 좋은 문학작품이란 독자들에게 이러한 대화의 메커니즘을 작품내부에서 스스로 잘 마련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교육의 내용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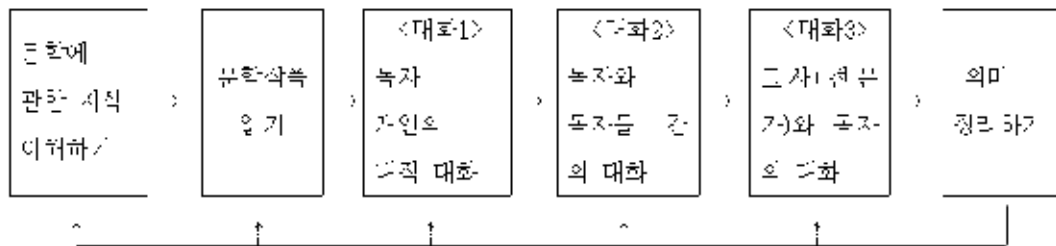
44) 박진아(2010). 「반응중심 소설 교육의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38쪽.

45) 최지현 외(2007).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역락, 294쪽.

대화란 두 주체 사이에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관점 혹은 타인과의 의견 교류를 통해 자신의 문학적 사유 방식을 성찰할 수 있으며, 새로운 문학적 사유를 추동시킬 수 있는 상호소통 형태의 의견 교환을 의미한다. '대화'는 다양한 목소리들의 교환을 통해 목소리의 차이,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좀 더 타당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중시한다.

성에서는 이러한 문학작품을 잘 선정하고 조작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이는 작품 차원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어떤 문학작품을 교육내용으로 제공하고, 이것을 대화의 원리에 의해서 감상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된 학습 활동(Learning Activity)을 문학교재에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는 더 의미 있는 문학교육 내용 구성 원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46)

교수·학습의 관점에서 볼 때, ‘대화’는 세 층위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층위는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독자 개인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대화이며, 둘째 층위는 독자와 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횡적인 대화이고, 셋째 층위는 전문가와 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이다. 47) 최지현 외(2007)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에 명시된 대화 중심 교수·학습 방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대화 1 : 독자 개인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대화

문학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독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읽기 방식은 독자의 내적 자아들 간에 이루어지는 내적대화의 형태를 띤다. 내적대화란 문

46) 최현섭 외(2005).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455쪽.
 47) 최지현 외(2007).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역락, 294쪽.

학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독자 개인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학적 사고들 간의 대화이다. 텍스트를 읽으면서 때로는 문학적 정서와 동일시를 통해 해당 텍스트의 세계에 공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민과 갈등 그리고 망설임을 겪기도 하며 그것은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 되물음의 형태를 띠면서 이루어진다.

대화 2 : 현실적 독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횡적 대화

독자 간 대화, 즉 학생과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는 현실적 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현실적 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횡적 대화의 형태를 띤다. 이것은 내적 대화를 통한 독자 개인의 문학 텍스트 읽기가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문학적 사유를 공개하고 타인의 사유와 동등하면서도 횡적인 대화를 통해 문학적 사유의 폭을 넓히고 조정하는 과정이다.

대화 3 : 이상적 독자와 현실적 독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종적 대화

종적대화라는 것은 이 대화가 교사가 교육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통제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것, 이상적 독자로서의 교사와 현실적 독자로서의 학생이라는 차이에 근거를 둔 대화임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독자에게 특정 의미를 제시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내적 대화, 독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나 횡적 대화 과정에서 오독으로 끝난 부분, 텍스트의 의미상 결락된 부분에 대해 교사의 지도 아래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 대화에서 교사의 역할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거나 의도를 가진

질문을 던짐으로서 새로운 문학적 사유를 가동시키는 것이다.

대화중심 교수·학습방법은 학생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 있어서 반응중심 교수·학습방법과 유사하다. 하지만 반응중심 교수·학습방법은 학생들의 반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대화중심 교수·학습방법은, 창의적인 학습활동을 구안하고 수업을 이끄는 교사의 역할 역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반응’이란 문학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대화’란 서로 다른 문학적인 견해를 가진 두 주체가 교류를 통해 자신의 관점을 객관적으로 보고 세워가며, 올바른 해석과 감상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상 3가지의 교수·학습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구인환 외(2007) 연구에 의하면, 학습자가 어떤 진정한 동기에 의해서 문학 또는 문학적인 것을 창작해내고 문학텍스트의 구조를 들추어 볼 수 있고, 자신의 경험 및 감수성에 비추어 작품의 의미를 발견해 낸 뒤 이런 모든 문학적 현상을 다시 현실과 삶에 되비추어 성찰하는 경험을 가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진정한 주체를 경험하는 것을 앞으로 문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중핵 내용으로 삼자고 주장한다.⁴⁸⁾ 학습자의 심미적인 독서를 통한 문학의 내면화, 학습자 중심의 문학 수용을 통한 반응과 대화중심은 학습자의 주체적인 문학 감상 및 해석과 표현을 중요시하는 가치를 살펴볼 수 있다. 학습활동은 문학의 내면화가 가능하도록 문학과 관련된 학습자의 경험을 이끌어내고, 소설 속의 여러 갈등과 상황을 통해 학습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습자의 충분한 대화와 반응을 이끌

48) 구인환 외(2007). 『문학교육론 5판』. 삼지원, 402쪽.

어낼 수 있도록 문학작품 속에서 다룬 문제들을 현실상황에 적용시킨 주제로 토의 활동 및 모둠별 발표를 하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것이다.

Ⅲ. 2009 개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학습활동 분석

지금까지 소설 수용의 내면화 과정, 대화와 반응을 중심으로 한 소설 교수·학습방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서 새 교육과정에 맞춰 학습활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장에서는 2009 개정 교과서의 현대소설 중 이청준의 ‘눈길’ 과 김유정의 ‘봄봄’ 을 수록한 교과서의 학습활동 문항을 서론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의 기준을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된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학습활동의 보완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이청준의 <눈길>을 수록한 교과서 학습활동

1) 지학사(박) 국어(하)

(1) 지학사(박) 단원의 구성

단원의 구성		수록된 제재 또는 내용
단원의 길잡이		단원 한 눈에 보기, 학습목표 소개
마중 글		최인호, 나는 어떻게 해서 소설가가 되었는가.
소단원	열기 전에	(1) 나희덕, 땅끝
	제재	(2) 황진이, 어저 내 이야기

	학습 활동	(3) 이청준, 눈길
단원의 마무리		내용 정리하기, 스스로 점검하기, 학습 관련 사이트 소개
작품 더 읽기		운동주의 자화상, 아리랑타령, 함세덕의 동승
교실 밖 체험		땅 끝에서 희망의 길을 묻다

[표5] 지학사(박) '눈길' 수록 단원의 구성

(2) 학습활동 분석

수록단원	5. 삶을 비추는 거울 (3) 눈길
학습목표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개인적인 체험과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인간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10-문-(3)】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 ◦ 인간의 문제 상황에 대한 문학적 해결 방안 이해하기 ◦ 문학을 통한 자신의 삶과 주위 세계 성찰하기 ◦ 문학 작품의 의의를 인간의 삶의 문제 속에서 파악하기

[표6] 지학사(박) '눈길' 수록 단원의 학습목표와 교육과정 성취기준

①-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의 내용을 교과서의 학습목표에서 잘 구현하고 있는가.

이 단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 **【10-문-(3)】**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 의 내용으로 3가지 내용요소의 예를 들고 있다. 이 중에서 지학사(박)에서 구체적인 학습목표로 설정한 것은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과 개인적

인 체험과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인간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체험과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인간 삶을 성찰하는 것’은 교육과정 성취기준 내용요소의 예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학습목표가 학습활동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확인하고 그것을 학습자로 하여금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이 필요하며, 개인적인 경험을 묻는 활동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첫 번째 학습목표인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의 남은 두 가지를 포함하여 거시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문학 작품을 읽어 나가면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인간을 이해해보고, 다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난 갈등과 해결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간접 체험함으로써 실제 삶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작품을 통한 문제 상황의 해결을 통해 문학 작품의 효용, 의의를 깨달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학사(박) 교과서에서 중점을 두어 학습목표로 강조한 것은 세 가지 내용요소의 예 중에서 ‘문학을 통한 자신의 삶과 주위 세계 성찰하기’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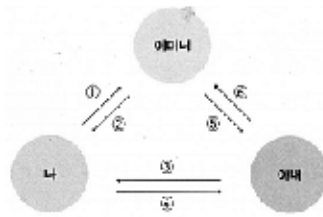
열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 덕분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지만, 세상살이의 힘겨움을 어머니로 돌리기도 한다. 이 단원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 주는 소설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보편적인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읽기 중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이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를 정리해 보자. · 어머니에 대한 ‘나’와 ‘아내’의 태도를 비교해 보자. · 고향집을 찾은 ‘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대목을 찾아보자.

	<p>·나는 왜 옷궤를 볼 때마다 '마음의 빛'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자.</p> <p>·'아내'가 옷궤에 얽힌 사연을 모른척하는 까닭은 무엇일까?</p> <p>·옛날 이야기를 덮어 두려는 어머니의 심정을 짐작해 보자.</p> <p>·어머니와 내가 서둘러 새벽 길을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p> <p>·어머니의 이야기가 두려운 이유를 '마음의 빛'과 관련지어 말해 보자.</p> <p>·자식을 보낸 후 홀로 돌아오는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려 보자.</p> <p>·'아내'는 어머니가 잣등 위에 앉은 까닭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p> <p>·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무엇을 부끄러워하는가?</p>
<p>자료 꾸러미</p>	<p>※ 새마을 운동</p> <p>1971년부터 정부주도로 생활 태도 혁신과 환경 개선, 소득 증대를 통한 농촌 근대화를 취지로 하여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졌다. 특히 농촌에서는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대체하는 지붕 개량 사업, 마을 진입로를 정비하는 도로 개설 사업 등과 같이 가시적인 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되었다.</p> <p>※ 옷궤</p> <p>어머니에게 옷궤는 유일하게 남은 흔적이라는 점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을 보여 주는 심리적 등가물이자,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아들에게 옷궤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불행했던 과거를 연상시키는 불쾌한 기억의 매개체이다.</p>
<p>학습활동</p>	<p>* 이해 학습</p> <p>01. '지붕 개량'에 대한 인물들의 생각을 비교해 보자.</p> <p>(1) 어머니는 왜 집을 수리하려고 하는가?</p> <p>(2) '나'가 어머니의 소망을 외면하는 까닭은 무엇인가?</p> <p>02. 옛집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p>

- (1) '나'가 집을 찾아간 목적은 무엇인가?
 (2) 어머니가 '나'를 기다린 이유는 무엇인가?
 (3) '나'와 '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옛집을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

* 목표 학습

03. 인물들이 평소 상대방에 대해 어떤 감정을 지니고 있는지 답해 보자.



04. 인물들 간의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을 생각하며 물음에 답해 보자.

- (1) '말간 햇살'에 대한 어머니의 부끄러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어머니가 지금까지 '그 새벽의 눈길'에 대해 말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3) 어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눈길'이라는 공간이 지니는 상징성은 무엇인가?

*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05. 이 소설과 비슷한 체험을 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만약 자신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해 보자.

[표7] 지학사(박) '눈길' 수록 부분 학습활동 정리

①-2. 교과서의 학습목표를 학습활동에서 잘 반영하여 구성하였는가.

지학사(박)의 학습목표는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

해하는 것' 과 '개인적인 체험과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인간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것' 이다. '열기 전에' 활동은 무엇보다도 작품에서 '어머니의 사랑' 을 주인공인 '나' 가 깨달아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자신의 체험으로 확장시켜 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읽기 중 질문들은 작품 속 주인공의 삶과 심정, 모자 간 갈등의 원인 등의 파악을 통해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이해학습' 의 질문은 작품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들이지만, 읽기 중 질문과 겹치는 질문들이 있다. 01번 중 (1)번 어머니는 왜 집을 수리하려고 하는가?, 02번 중 (3)번 '나' 와 '어머니' 가 어둠속에서 옛집을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 의 질문은 읽기 중 질문에서 '노인이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를 정리할 것' 이나 '어머니와 내가 서둘러 새벽길을 떠난 이유' 에 대한 질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슷한 질문일지라도 학습자가 표현해내는 형태를 달리하거나,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질문으로 바꾸었다든지 등 좀 더 차별성을 두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목표학습' 중 03번 "인물들이 평소 상대방에 대해 어떤 감정을 지니고 있는지 답해 보자." 활동을 통하여 작품 속 인물간의 단순 갈등 구도와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리할 수 있으나, 감정을 형성하게 된 이유나 인물의 태도 혹은 성격에 대해 질문했다면 학습자가 질문에 답하면서 작품 속 인물들이 갈등하는 상황과 심리에 대해 더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목표학습에 해당하는 04번은 학습자로 하여금 어머니의 행동과 언어를 통하여 '자식을 향한 지고지순한 어머니의 사랑' 에 대해 이해하도록 '어머니의 심리' 에 초점을 두었다. 결국은 자식을 떠나보내야 하는 가슴 아픈 상황과 집안의 몰락이라는 현실적 고통 앞에서 어머니의 반응과 심정

은 어떠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작품 주제에 대한 맥락을 깨닫고 작품 속 인물의 고단한 삶을 이해해보도록 하여 학습 목표에 도달하고자 했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05번은 “개인적인 체험과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인간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의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활동이다. 궁극적으로 갈등 상황 앞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문학 작품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교과서에서 뚜렷하게 학습목표로 명시한 것들은 학습활동에서 반영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중에서 ‘문학 작품의 의의를 인간의 삶의 문제 속에서 파악하기’의 활동은 물론 대단원 안에서는 다루려 노력했음지라도, 소단원 ‘눈길’에서는 학습활동의 문항으로 제시한 활동을 찾아보기 어렵다.

㉔ 학습활동들이 작품을 섬세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작품과 관련되는 다양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발견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는가.

읽기 전 학습활동이 ‘열기 전에’로 명시되어, 작품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을 염두하며 읽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 주는 소설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보편적인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의 내용으로 학습자가 ‘눈길’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과 관련된 맥락을 파악하고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인류 보편적 정서와 삶을 이해하여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10-문-(3)】의 성취 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학습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삶과 문학 작품의 상호 참조적 이해와 관련이 깊다. 일반적으로 보편성의 체험 형식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 하나는 남의 체험과 나의 체험의

유사성에 근거해서 미루어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것에 견주어 아는 것이다.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마주하고 있는 그 인물의 체험이 나의 체험과 유사한 점이 있으리라 가정하고 나의 경우를 미루어 그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경우를 미루어 나를 이해한다는 점을 중시한다. 결국 이러한 유사성에 기초하여 삶의 다양한 맥락을 활용하여 문학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문학 작품을 둘러싼 개인적 혹은 실존적 상황과 다양한 사회 문화적 맥락을 다양하게 참조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나, 학습자의 수준에 유의하여 너무 방대한 활동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9)

학습자의 삶과 작품 주인공의 삶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삶의 맥락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이 성취기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구체적인 경험을 충분히 떠올릴 수 있고, 문학 작품 속 주인공이 겪는 심리적 갈등,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두 맥락의 접점을 찾아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활동이 되어야 한다.

이 방향성으로 미루어볼 때, 지학사(박)의 ‘열기 전에’ 활동이 구체적인 문항으로 제시되어 학습자에게 창의적이면서 흥미를 자아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학습의 방향 제시 및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삶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강조점을 풀어 안내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읽기 중 활동들은, 날개 질문들과 자료꾸러미와 어휘풀이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자료꾸러미에 소개된 ‘새마을 운동’은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고, ‘웃궀’은 이 작품에서 인물들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49)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 국어』, 55쪽.

소재인데, 학습자에게 작품 내용과 관련된 맥락을 더 섬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읽기 중 날개질문들은 주인공인 ‘나와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어 ‘나’의 심정의 변화와 행동 속에 감춰진 ‘어머니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나’와 ‘어머니’ 관계에서 오해를 풀고 갈등을 해소하도록 돕는 ‘아내’의 역할과 ‘나’와 ‘어머니’의 어려웠던 지난 가정 상황을 확인하게 하여 갈등의 주된 요인을 파악하게 하는 질문들을 제시하였다.

결국은 읽기 중 질문들이 작품 주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주된 질문을 하고 있되, 어머니의 사랑과 마음을 부정했던 ‘나’가 점점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작품을 읽어나가면서 학습자가 ‘어머니 사랑’이라는 보편적 삶의 모습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 지학사(박)에서 ‘학습활동’이라고 불리는 ‘읽기 후 활동’은 학습자의 경험, 개인의 삶의 맥락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학사(박)에 제시된 ‘읽기 후 학습활동’은 작품의 핵심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묻는 ‘이해학습’과 학습목표에서 제시했던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목표학습’,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위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학습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거나 작품 내용과 학습자 삶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도록 기능하는 학습활동은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에서 ‘이 소설과 비슷한 체험을 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만약 자신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해 보자’라는 활동 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결국 학습자의 삶의 맥락과 작품의 맥락의 유사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활동은 문항 수에 있어서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③ 문학 수용의 결과를 내면화할 수 있는 창의적이면서도 실천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었는가.

지학사(박)에서 학습자의 체험이나 경험을 떠올려 문학 작품과 연결해보는 활동은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05번 활동’ 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소설과 비슷한 체험을 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만약 자신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어떻게 행동했을지 말해보자.” 이다. 문학 수용의 결과를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설과 비슷한 체험’ 이라는 기준이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게 좀 더 뚜렷하고 자세히 안내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 또한 잘 상기시켜볼 수 있도록 흐름과 단계가 필요한데 ‘눈길’ 의 학습활동에서는 학습자의 삶과 연결시켜 보는 활동은 마지막에 한 가지 뿐이며, 그 또한 ‘비슷한 체험’ 이라는 것이 작품 속 주인공의 상황처럼 ‘집안이 몰락한 것인지’, ‘부모님의 물질적인 도움 없이 자수성가해서 살아온 생활’ 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상황적인 측면에 빚대어 생각하게 된다면 대다수의 학습자는 본인의 삶과 너무 동떨어진 삶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체험’ 과 작품 속에서 다루는 ‘보편적 삶의 조건’ 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질문이 요구하는 바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활동은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보거나 본인이 작품 속 인물과 같은 처지가 되어 등장인물의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면화의 과정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이다. 갈등해소의 해결방안을 생각하고 말해보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면 현실에서 갈등을 해소해야하는 과정 앞에서 학습자가 취해야할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④ 지식과 기능, 맥락이 통합되어 문학적인 글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만들 수 있는 적용 가능한 학습활동인가.

작품의 주제이자 이 단원에서 알아야 할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조건으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해, 문학작품에서 나타난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 갈등의 해결과정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결국은 작품의 문제 상황 앞에 학습자 본인의 경우를 적용시켜 반응을 이끌어내는 활동으로 귀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텍스트를 창작해내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생산’의 개념이 문학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결국은 작품의 수용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생산 활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⑤ 사회의 변화와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매체(50)를 통해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에 참여하였는가.

지학사(박) ‘눈길’의 학습활동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매체적인 요소를 도입한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눈길’의 학습활동뿐만 아니라 ‘눈길’을 다루고 있는 대단원 ‘5. 삶을 비추는 거울’의 다른 소단원에 삽입된 학습활동을 보아도 매체 활동과 통합된 활동은 찾아볼 수 없다.

50)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 국어』, 432쪽.

근래 들어서 문학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과거에도 문학은 노래, 연극 등과 서로 겹치는 관계로 이해해 왔는데, 최근에는 여기에 덧붙여 그림, 만화, 영화, 드라마, 뮤지컬, 뮤직비디오, 광고 등도 문학적인 자질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한편,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기능과 네트워크가 결합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문학 소통 구조가 생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같은 문자 중심 문학 활동을 넘어서서, 다매체적 문학 교육이 필요해진 것이다. 따라서 음악, 미술, 연극과 영화, 인터넷 등과 결합한 교수 학습 방법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이 좋다.

2) 비상교육 국어(상)

(1) 비상교육 단원의 구성

단원의 구성		수록된 제재 또는 내용
단원을 열며		단원학습과정, 알아두기 (수필에 담긴 개성, 문학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다, 전기문의 특성을 찾아라)
소단원	읽기 전	(1) 박완서, 트럭아저씨 ·루원, 연 (2) 이청준, 눈길 (3) 한국방송 한국사전 제작부, 간송(澗松)과 전형필(全瑩弼)
	활동	
	제재	
학습활동		
단원을 맺으며		퍼즐 풀기를 통한 학습 내용 정리, 점검하기
마당		느낌을 나누는 감성 (마당 삶의 이야기가 담긴 판화 두 작품을 감상해 보고, 친구들과 그 느낌을 나누어 보자.)

[표8] 비상교육 ‘눈길’ 수록 단원의 구성

(2) 학습활동 분석

수록단원	4. 사람이 아름답다 (2) 눈길
학습목표	·자신의 삶에 비추어 소설을 이해하고 주위 세계를 성찰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의 의의를 인간의 삶의 문제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10-문-(3)】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 ◦ 인간의 문제 상황에 대한 문학적 해결 방안 이해하기 ◦ 문학을 통한 자신의 삶과 주위 세계 성찰하기 ◦ 문학 작품의 의의를 인간의 삶의 문제 속에서 파악하기

[표9] 비상교육 ‘눈길’ 수록 단원의 학습목표와 교육과정 성취기준

①-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의 내용을 교과서의 학습목표에서 잘 구현하고 있는가.

이 단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10-문-(3)】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 의 내용으로 3가지 내용요소의 예를 들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지학사(박)와 같은 성취기준에 해당된다. 하지만 지학사(박)의 작품 속에 나타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 즉 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견주어 현실의 문제 상황 앞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더욱 중심을 두었다면, 비상교육 또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되 “문학 작품의 의의를 인간의 삶의 문제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의 내용 또한 강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세 가지 성취기준 중에서 구체적으로 풀어 명시한 것은, ‘문학 작품의 의의를 인간의 삶의 문제 속에서 파악하는 것’ 과 ‘문학을 통한 자신의 삶과 주위 세계 성찰하기’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학작품의 이해를 통해 자신과 주위의 세계를 성찰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자신이 겪는 삶의 문제를 되돌아보는 것까지 목표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p>미리 생각해보기</p>	<p>※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던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p> <p>① 삶을 성찰하게 하는 소설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② ‘눈길’이라는 제목에서 어떤 분위기를 떠올릴 수 있을까? ③ 스스로 만들어 보는 학습 질문</p>
<p>읽기 중 활동</p>	<p>·‘나’가 어머니의 ‘체념’에 짜증을 느낀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왜 어머니와 주고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지붕 개량’에 대한 소망을 표현한 말로 보아, 어머니가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p>

	<p>·어머니를 가리켜 ‘노인’ 이라고 하는 것에는 ‘나’의 어떤 심리가 반영되어 있을까?</p> <p>·‘나’는 왜 때때 울음소리를 무덤고 게으르다고 하였을까?</p> <p>·아내가 ‘옷장’ 이야기를 꺼낸 목적은 무엇일까?</p> <p>·어머니가 골목에서 서성이고 있는 ‘나’를 나무란 이유는 무엇일까?</p> <p>·‘나’에게 있어서 ‘옷궤’의 의미는 무엇일까?</p> <p>·아내가 어머니에게 ‘그 날 밤 진짜 심경’을 말하게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p> <p>·‘나’는 왜 어머니의 말을 중단시키려고 하였을까?</p> <p>·‘나’는 왜 ‘그 새벽 눈길의 기억’이 사라져가 주기를 바랐을까?</p> <p>·‘눈길’을 혼자 걸어 돌아오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p> <p>·어머니는 왜 부끄러움을 느꼈을까?</p>
<p>작가소개</p>	<p>※ 이청준(1939~2008)</p> <p>소설가. 산업 사회의 인간 소외 문제, 지식인의 존재 해명, 전통적 정서의 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썼다. 주요 작품으로 ‘병신과 머저리’, ‘소문의 벽’, ‘이어도’, ‘당신들의 천국’, ‘서편제’ 등이 있다.</p>
<p>학습활동</p>	<p>(내용) 1. ‘눈길’을 감상하고 주요 소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p> <p>(1) 이 소설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소재를 찾고, 그 소재가 ‘나’와 ‘어머니’에게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하여 써 보자.</p> <div data-bbox="558 1265 1013 1512" style="text-align: center;"> </div> <p>(내용 목표) 2. ‘눈길’에 드러나는 갈등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삶에 비추어 생각해 보자.</p> <p>(1) ‘나’가 어머니와 겪는 갈등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갈등을 겪는 이</p>

유를 적어 보자.

(2) 이 소설에서 '빛'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빛'이 없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나'의 내적 갈등을 말해 보자.

(3)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진 '빛'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이 '빛'과 관련된 경험을 말해 보자.

(목표) 3. '눈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파악해 보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보자.

(1)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정리하여 써 보자.

인물	인물의 성격
나	· 집을 고치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바람을 외면하는 매정한 면이 있다. ·
노인	· ·
아내	· ·

(2) 이 소설의 등장인물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 보고,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말해 보자.

(확장목표) 4. 다음 소설에 드러난 문제 해결 방안을 파악해 보고, 소설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자.

* 소설제재 : 모파상 지음, 방곤 옮김 '목걸이' 중에서

	(1) 루아젤이 문제 상황을 적절하게 해결하였는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자.	
	적절했다. 왜냐하면,	적절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2) 다음은 이 소설의 결말 부분이다. 루아젤의 심정이 어떨는지 생각해 보고, 이 소설이 독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자.	

[표10] 비상교육 '눈길' 수록 부분 학습활동 정리

①-2. 교과서의 학습목표를 학습활동에서 잘 반영하여 구성하였는가.

비상교육의 학습목표는 “자신의 삶에 비추어 소설을 이해하고 주위 세계를 성찰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의 의의를 인간의 삶의 문제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다. 학습자의 삶에 비추어 소설을 이해하는 활동은 (내용목표)2번과 (목표)3번에 해당하는 활동이며, 문학 작품의 의의를 인간의 삶의 문제 속에서 파악해보는 활동은 (확장목표)4번의 (1), (2)번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4번 활동은 모파상의 ‘목걸이’ 라는 제재에서 주인공의 행동을 학습자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인공의 해결방안에 대해 비평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문학작품에서 인물의 행동이 빚어내는 결과의 목적을 통해 학습자는 현실세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본인만의 주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그것이 바로 문학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와 의의라는 것을 학습자로 하여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목표로 제시한 내용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내용요소의 예가 모두 학

습활동에서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㉔ 학습활동들이 작품을 섬세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작품과 관련되는 다양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발견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는가.

지학사(박)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학년별 성취기준【10-문-(3)】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강조하고 있는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의 삶과 작품 주인공의 삶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삶의 맥락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도록, 학습자의 구체적인 경험을 충분히 떠올리고 작품 속 등장인물의 삶의 맥락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 학습활동을 지향해야 한다.

먼저, 읽기 전 활동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던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 해보는 것은 작품의 주제와 연관된 부분을 미리 알게 하며 학습자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가족의 사랑과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떠올려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을 읽는 도중에도 자신의 경험과 작품 속 등장인물의 가족에 대한 관점의 차이 혹은 주인공이 가족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과 비교하며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학습자의 삶과 등장인물의 삶의 맥락의 거리를 좁혀가며 수용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읽기 중 학습활동은 크게 작품 속에서 몰락한 집안의 상황 및 어머니와 나의 관계를 묻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는 ‘나’와 유년시절의 아들에게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공급해주지는 못했으나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했던 ‘어머니’의 심정을 추측해볼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인공 간에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중재자인 ‘아내’의 역할 또한 묻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읽기 중 학습활동을 통해 작품 속 상황과 주인공들의 내면 심리,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상교육은 지학사(박)에 비해 어머니의 사랑을 직면하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은 ‘나’의 심리적 갈등을 좀 더 자세하게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제재 중간에 ‘눈길’의 작가 ‘이청준’을 소개하는 짧은 글을 실어놓았는데 작품에 관련된 문학사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읽기 후 학습활동에서는 먼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요소재가 ‘나’와 ‘어머니’에게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고 있다. ‘옷궤’나 ‘눈길’과 같은 소재들이 오랫동안 갈등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나’와 ‘어머니’에게는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이 갈등 관계를 파악하고 어머니와 나의 관계를 좀 더 이해해볼 수 있는 학습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내용목표 2번은 직접적으로 ‘갈등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데 작품 속 갈등의 이해를 통해 학습자의 삶과 유사성을 찾아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진 빛의 경험’을 나누는 활동이 더욱 항목별로 구체화되거나, 학습자의 경험을 묻는 질문이 작품 속 주제인 ‘어머니의 사랑’과도 연결 되어 작품 주제를 더욱 심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 제시되었다면 “문학을 통해 주변 세계를 성찰할 수 있다.”는 학습 목표의 범위에서 작품 자체에 대한 내면화의 과정까지 더욱 진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목표)3번은 등장인물의 성격을 정리해서 써본 뒤 학습자의 주변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닌 사람을 찾아보고 말해보는 활동이다. 작품 속 인물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소설’이 ‘문학작품’이라는 거리감 없이 자신의 삶의 연장선인 것처럼 현실세계와 작품을 더욱 더 긴밀하게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문-(3)】의 성취기준에서 제시했던 구체적인 맥락이란 본인의 경험을

미루어 문학작품 속 주인공들과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작품 속 주인공과 내용을 통해 자신을 이해해보는 ‘삶의 맥락의 유사성’에 근거한 것이었다. 비상교육에서는 문학작품의 내용과 학습자의 삶을 연결해보고자 시도한 활동들이 같은 성취기준을 내용으로 한 지학사(박) 보다는 문항이 조금 더 많았다. 그러나 학습활동들이 문학작품의 인물들과 학습자의 비슷한 경험을 연결 짓되,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게 하는 활동들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본질, 즉 중요한 핵심적 가치와 깊이 연결될 필요가 있다.

③ 문학 수용의 결과를 내면화할 수 있는 창의적이면서도 실천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었는가.

비상교육에서 학습자의 체험이나 경험을 떠올려 문학작품과 연결해보는 활동은 읽기 후 학습활동에서 (내용목표)2번의 활동과 (목표)3번 활동이다. 2번 “눈길에 드러나는 갈등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삶에 비추어 생각해 보자.”의 활동 내용에서 (1)번은 작품 속 주인공들이 겪는 갈등의 내용을 이해하고,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작품 속 ‘나’의 심리에 대해 묻는 질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작품 속 갈등상황을 이해한 후 (3)번 활동으로 학습자 본인의 경험에 대해 묻고 있다.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진 빛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이 빛과 관련된 경험을 말해 보자.”라는 활동이다.

‘눈길’에서 말하고 있는 ‘빛’이란 풀어 말하자면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일 것이다. 주인공인 ‘나’는 형편이 어려워진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뒷바라지와 헌신의 수고에서 오는 깊은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기보다는, 자수성가해서 스스로를 일으켰다는 신념이 강한 인물이다. 따라서 ‘빛이 없음’을 강조한다는 것은,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이 없으니 자식으로서 보답해야 할 다른 도리와 책임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묻는 것이 (2)번 활동이었다면 (3)번에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진 ‘빛’에 대한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내면화의 과정을 위해 자신의 체험을 상기시켜보는 것은 적절하지만, 질문의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진 ‘빛’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 즉 마음의 빛’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학습활동의 방향이 원래 의도했던 방향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빛’이라는 구체적인 맥락을 설정해주는 것이 좀 더 질문의 의도에 접근하기 용이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빛’이라는 ‘은혜를 입은 경험’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맥락을 설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 작품 속 갈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은 구체적이지만 학습자의 본인의 경험을 묻는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는다면, 작품 속 갈등의 이해를 통해 학습자의 삶과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내면화의 과정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의 도달까지는 어려워지며 작품 내용에 대한 이해에서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목표)3번 활동은 문학수용의 결과를 학습자의 일상적 경험과 연관 지어 해석할 수는 있으나, 작품이 다른 가치가 자신의 삶과 관련되는 의의를 탐색하며 작품의 가치를 깊이 내면화하기까지는 어려워 보인다. 작품의 가치와 학습자의 삶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작품에서 다른 주제와 갈등의 해결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겪었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 문학작품의 내용을 통해 학습자의 심리적 갈등의 기억들을 상기시켜 작품과 비교해보거나 동일시 혹은 대응해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④ 지식과 기능, 맥락이 통합되어 문학적인 글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만들 수 있는 적용 가능한 학습활동인가.

‘눈길’에서 나오는 주요 소재를 통해 작품에 대한 지식을 확인하고 작품 속 갈등과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한 이해에 이르고 있다. 또한 나아가 문학 작품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말하거나 자신의 생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어 써보는 생산적인 활동으로 귀결되고 있다.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나 긴 글을 쓰는 실제의 창작활동은 없지만, 작품을 적용하여 본인의 삶이나 생각을 쓰고 말하는 활동이므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에 부합하는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㉔ 사회의 변화와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에 참여하였는가.

지학사(박)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눈길’을 수록한 단원 안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수용한 활동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천재교육(김) 국어(하)

(1) 천재교육(김) 단원의 구성

단원의 구성		수록된 제재 또는 내용		
단원의 길잡이		학습목표, 소단원 목차		
소 단원	지식마당	(01) 사람을 보는 관점 (02) 인간관계를 보는 관점	(1)	지식마당: 사람을 보는 관점의 전통 탐구하기
	어휘력 기르기			이해마당: 열녀춘향수절가 적용마당: 최인훈, 광장
	이해마당	(03) 자연을 보는 관점	(2)	지식마당: 인간관계를 보는 관점의 전통 탐구하기
	적용마당			이해마당: 이청준, 눈길

			적용마당: 로버트 치알다니, 설득의 심리학
	선택활동		(3) 지식마당: 자연을 보는 관점의 전통 탐구하기 이해마당: 정철, 관동별곡 적용마당: 최순우, 건축미에 나타 난 자연관
단원의 마무리	종합, 평가		
심터	춘향전 변천사		

[표11] 천재교육(김) '눈길' 수록 단원의 구성

(2) 학습활동 분석

수록단원	3. 문화전통의 지속과 변모 (02) 인간관계를 보는 관점 이해마당 - 눈길(이청준)
학습목표	·언어문화 전통에서 지속된 요소를 파악하고 그 의의를 이해한다. ·언어문화 전통에서 변모한 모습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소단원 학습목표	① 남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는 표현이나 행동을 찾아 정리 합니다. ② 다른 언어 자료도 살펴 전통의 지속과 변모를 확인합니다. ③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삶에서 갖는 의의를 추리합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10-문-(5)】 수용과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 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문학적 전통의 개념과 의미 파악하기 ◦ 과거의 문학적 전통과 오늘날의 문학적 전통 비교하기 ◦ 문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다양한 작품 감상하기

[표12] 천재교육(김) '눈길' 수록 단원 학습목표와 교육과정 성취기준

①-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의 내용을 교과서의 학습목표에서 잘 구현하고 있는가.

천재교육(김)에 수록된 ‘눈길’은 교육과정의 학년별 성취기준【10-문-(5)】“수용과 전송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 내용에 해당된다. 한국 문학의 전통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 ‘사람을 보는 관점’과 두 번째로 ‘인간관계를 보는 관점’, 세 번째로 ‘자연을 보는 관점’으로 나누었다. 그 중 ‘눈길’은 두 번째 소단원인 ‘인간관계를 보는 관점’에 수록된 제재이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내용요소의 예 두 번째 요소인 “과거의 문학적 전통과 오늘날의 문학적 전통 비교하기”의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 학습목표에서는 언어문화 전통에서 지속된 요소와 전통에서 변모한 모습을 파악하며 의의와 변모의 원인에 대해 탐구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학습목표로 명시하여 세우지는 않았지만 내용요소의 예 첫 번째인 ‘문학적 전통의 개념과 의미 파악하기’는 두 번째의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단원의 길잡이’와 ‘지식마당’을 통해 전통의 개념에 대해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소단원의 학습목표는 문학 제재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것과 다른 언어자료도 살펴 전통의 지속과 변모를 알고 의의를 탐구하도록 구성하였는데 교육과정 내용요소의 예에서 두 번째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대단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성취기준의 다른 내용 요소도 포함하여 구성하기는 하였지만 천재교육(김)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내용 요소의 예 중에서 두 번째 요소이다.

<p>지식마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관계를 보는 관점의 전통 탐구하기 <p>·인간관계를 보는 관점이란</p> <p>‘인간관계를 보는 관점’이란 사람들과 사귀며 살아가는 데 대하여 가지는 일정한 견해를 뜻합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며 반드시 남과 더불어 가족, 학교, 지역, 직장 등의 공동체나 사회를 이루며 삽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는 인류의 오랜 관심사입니다.</p> <p>·인간관계를 보는 관점의 전통을 탐구하는 방법</p> <p>우리의 언어문화 자료를, 더불어 사는 삶의 태도와 방식에 대한 생각과 실천의 흔적으로 여깁니다. 인간관계를 보는 관점의 지속과 변모를 살피고 그 의의를 생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남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는 표현이나 행동을 찾아 정리합니다. ② 다른 언어 자료도 살펴 전통의 지속과 변모를 확인합니다. ③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삶에서 갖는 의의를 추리합니다. 						
<p>어휘력 기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용적 비유 표현의 용법 익히기 <p>관용적 비유 표현은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널리 쓰이므로 정확하게 그 용법을 익혀 두면 효과적인 언어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순서로 활동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음 관용적 비유 표현을 설명하는 빈칸을 채웁니다. <table border="1" data-bbox="368 1581 1241 1680"> <thead> <tr> <th>관용적 비유 표현</th> <th>직설적인 표현으로 바꾸기</th> <th>적용하여 실제로 표현하기</th> </tr> </thead> <tbody> <tr> <td>삼살개 뒷다리.</td> <td></td> <td></td> </tr> </tbody> </table>	관용적 비유 표현	직설적인 표현으로 바꾸기	적용하여 실제로 표현하기	삼살개 뒷다리.		
관용적 비유 표현	직설적인 표현으로 바꾸기	적용하여 실제로 표현하기					
삼살개 뒷다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물먹은 솜 같다.</td> <td style="width: 30%;"></td> <td style="width: 40%;"></td> </tr> </table> <p>② 관용적 비유 표현 중에는 본래의 뜻을 짐작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다음 관용적 비유 표현을 서서 문장을 만듭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50%;">관용 표현</th> <th style="width: 50%;">문장으로 표현하기</th> </tr> </thead> <tbody> <tr> <td>꿀 먹은 병어리처럼.</td> <td></td> </tr> <tr> <td>마음이 굴뚝같다.</td> <td></td> </tr> <tr> <td>진날 개 사권 이 같다.</td> <td></td> </tr> </tbody> </table>	물먹은 솜 같다.			관용 표현	문장으로 표현하기	꿀 먹은 병어리처럼.		마음이 굴뚝같다.		진날 개 사권 이 같다.	
물먹은 솜 같다.												
관용 표현	문장으로 표현하기											
꿀 먹은 병어리처럼.												
마음이 굴뚝같다.												
진날 개 사권 이 같다.												
이해마당	<p>다음은 인간관계에 대한 모자(母子)간의 관점의 차이가 잘 드러나는 소설입니다. 관점의 차이에 주목하여 읽고 활동합니다.</p>											
읽기 중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노인’이 서로를 대하는 생각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추측하며 읽습니다. · ‘그 노인’이 이야기를 하는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나’가 굳이 그렇게 부르는 까닭에서 어떤 마음을 알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 ‘실수’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어 서로 엇갈리는 ‘노인’과 ‘나’의 마음을 정리해 봅니다. · 인간관계에 대해 ‘노인’이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는지 탐구하여 읽습니다. · 노인에 대한 ‘나’의 생각이 압축된 표현입니다. 이런 생각은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관점의 반영일까를 탐구하며 읽습니다. · 이 ‘때미 울음’이 ‘나’의 어떤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지 추리합니다. · ‘노인’의 행동과 그 행동의 바탕에 놓인 생각에서 ‘노인’의 ‘나’에 대한 관점을 탐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노인’의 관점입니다. · 인간관계에 대한 “ ‘나’의 관점이 거듭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이를 바 											

	<p>탕으로 '나'는 노인과의 관계를 ○○로 보고 처신한다."라는 문장 형식으로 정리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관계에 대한 '나'의 관점이 거듭됨을 확인합니다. 그 핵심어는 '빛'입니다. ·'노인'의 말에서 '나'에 대한 생각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노인'의 관점을 생각합니다. ·'노인'의 이 대화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관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에 담긴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생각을 간추립니다. ·이 광경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한 다음, '나'가 '노인'을 대하는 관점과 '노인'이 '나'를 대하는 관점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p>작가소개</p>	<p>※ 이청준 (李清俊)</p> <p>1960년대에 문단에 나와 많은 소설을 썼으며, 처음에는 산업 사회에서 빚어지는 인간의 소외, 지식인의 의미 등을 다루는 소설을 주로 발표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를 다룬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p>						
<p>학습활동</p>	<p>1. '노인'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핵심적인 이유는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있다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그 원인을 정리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368 1249 1230 1603"> <thead> <tr> <th data-bbox="368 1249 802 1290">생각의 차이가 드러나는 말</th> <th data-bbox="802 1249 1230 1290">인간관계에 대한 관점</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68 1290 802 1429">'잠이나 자자. 빛이고 뭐고 잠들면 그만이다. 노인에게 내가 무슨 빛이 있단 말인가..... .'</td> <td data-bbox="802 1290 1230 1429"></td> </tr> <tr> <td data-bbox="368 1429 802 1603">"내 자석아, 내 자석아, 너하고 돌아온 길을 이제는 이 몸쓸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td> <td data-bbox="802 1429 1230 1603"></td> </tr> </tbody> </table> <p>(도움말) '노인'의 이러한 생각을 가리켜 흔히 '맹목적 모정'이라고도</p>	생각의 차이가 드러나는 말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	'잠이나 자자. 빛이고 뭐고 잠들면 그만이다. 노인에게 내가 무슨 빛이 있단 말인가..... .'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너하고 돌아온 길을 이제는 이 몸쓸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생각의 차이가 드러나는 말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						
'잠이나 자자. 빛이고 뭐고 잠들면 그만이다. 노인에게 내가 무슨 빛이 있단 말인가..... .'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너하고 돌아온 길을 이제는 이 몸쓸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붙일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이는 나이나 학식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일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자기점검) 대사에 담긴 생각을 파악하기 어려우면 이 작품을 다시 한번 더 읽으면서 해결하도록 합니다.

2. ‘노인’과 ‘나’의 관계는 모자(母子) 사이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서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를 달리 바꾸어 설정하고 사람이 더불어 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검토할 인간관계	
사람이 더불어 사는 데 가장 중요한 것	

(도움말) 맹자가 말한 사단(四端)을 단서로 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맹자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측은해 하는 마음(惻隱之心)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부끄러워하는 마음(羞惡之心)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사양하는 마음(辭讓之心), ‘시비를 가리는 마음(是非之心)’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측은지심은 인(仁)의 단서이고, 수오지심은 의(義)의 단서이며, 사양지심은 예(禮)의 단서이고, 시비지심은 지(智)의 단서이다.”

3. 지금까지 ‘인간관계에 대해 자신이 지녔던 관점을 돌아보고, 앞으로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할 것인지 밝히는 글을 씁니다.

(도움말) 추상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 사례를 밝히는 것이 설득

	<p>력 있습니다. 설명을 하거나 그 설명을 이해할 때 예시(例示)의 방법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점을 고려합니다.</p>				
적용마당	<p>※ 이 글이 실린 책은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판된 이래 100쇄를 넘겨 거듭 찍어낼 정도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였으며, 속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과 베스트셀러의 인기 비결을 아울러 생각하면서 읽고 활동합니다.</p> <p>* 제재 (설득의 심리학 / 로버트 치알다니, 이현우 옮김)</p> <p>※ 로버트 치알다니(Robert B. Cialdini) 미국의 심리학자. 인성과 사회 심리학을 주로 연구하였고, 대중을 위한 교양 강연도 활발히 했습니다.</p> <p>1. 자신이 ‘일보 후퇴 이 보 전진’의 설득 전략을 사용하여 ‘눈길’의 어머니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지를 정리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368 1200 1232 1435"> <tr> <td data-bbox="368 1200 643 1296">어머니(‘노인’)에게 조언할 말</td> <td data-bbox="643 1200 1232 1296"></td> </tr> <tr> <td data-bbox="368 1296 643 1435">조언한 대로 했을 때 예상되는 인간관계의 문제점</td> <td data-bbox="643 1296 1232 1435"></td> </tr> </table> <p>(도움말)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독특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을 때 그 관계는 ‘눈길’의 ‘나’가 줄곧 생각하는 ‘빔’으로 상징되는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점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p>	어머니(‘노인’)에게 조언할 말		조언한 대로 했을 때 예상되는 인간관계의 문제점	
어머니(‘노인’)에게 조언할 말					
조언한 대로 했을 때 예상되는 인간관계의 문제점					

	<p>(자기 점검)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을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활동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 마당 세 활동을 차례대로 해 본 다음, 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p> <p>2. 다음은 이 책의 속편에 실린 저자 서문의 일부로, 이 책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요인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분석의 적절성을 평가합니다.</p> <p>* 이 글의 요인분석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p> <p>(도움말)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그것이 옳은 분석인지 자신의 판단을 근거와 함께 제시합니다.</p> <p>3. 다음은 인류의 성인(聖人)들이 한 말이나 생각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인간관계에서 지속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씁니다. 이 단원의 활동을 통해 정리한 것들을 내용의 일부로 활용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내가 원치 바를 남에게 시키지 말라. 논어</p> <p>* 불교에서는 세계를 대하는 태도로서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자비의 정신을 강조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와 무생명체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인 자비를 베푸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브래테니커</p> <p>*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p> </div>
--	---

[표18] 천재교육(김) '눈길' 수록 부분 학습활동 정리

①-2. 교과서의 학습목표를 학습활동에서 잘 반영하여 구성하였는가.

‘이해마당’에 포함되어 있는 읽기 중의 학습활동은 제재에서 나타난 인물간의 대화 혹은 주인공의 독백을 통해 전통과 현대에서 ‘인간관계 속에 나타난 관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소단원 학습목표의

①번인 “남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는 표현이나 행동을 찾아 정리합니다.” 의 목표를 반영한 것이다. 학습목표 ②번에서 다른 언어자료도 살펴 전통의 지속과 변모를 확인하는 것은 ‘적용마당’ 에서 ‘설득의 심리학’ 이라는 자료를 통해 실현하였다. 관점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현대의 관점과 전통적인 관점이 자신에게 갖는 의의를 정리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여 ③번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삶에서 갖는 의의를 추리합니다.” 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였다.

‘이해활동’ 에서 1,2번에 해당하는 활동이 전통과 현대의 관점을 비교하는 활동이며 2번 활동은 ‘오늘날의 관점’ 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바른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3번 활동은 검토해본 두 관점을 통해 전통적인 관점에서 계승되어야 할 것에 대해 자신의 삶에 비추어 생각해보도록 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② 학습활동들이 작품을 섬세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작품과 관련되는 다양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발견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는가.

이 성취 기준은 한국 문학사의 전통을 이해하고 그 전통을 형성하는 주요 작품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문학적 전통의 개념과 의미를 파악하고 그 전통을 이루는 주요한 작품을 감상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성취 기준의 달성을 위해서는 ① 문학적 전통의 개념과 의미 파악하기, ② ‘갈래, 발상법, 표현 방법, 서사구조, 인물 유형’ 등에서 나타나는 전통의 특질을 추출하고 비교·대조하기, 그리고 현재의 의미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③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작품을 감상하기 ④ 하나의 전통이 생겨난 맥락 파악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51)

51) 위의 책 57쪽.

따라서 작품에서 문학적 전통의 개념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용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갈래, 발상, 표현방법과 서사구조, 인물 유형 등에서 전통의 특질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오늘날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안한 학습활동이 필요하다. 작품을 통해서 문학에서 지속된 우리의 전통적인 모습이 무엇이며 오늘날에 이르러 변모한 모습은 무엇인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전통이 생겨난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에까지 이를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천재교육(김)의 읽기 전 활동이란 ‘지식마당’ 과 ‘어휘력 기르기’ 로 나뉘어져 있다. ‘지식마당’ 은 본격적으로 읽기에 앞서 학습자로 하여금 어떻게 작품을 수용해야 할지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 중에서도 특히 ‘인간관계’ 를 보는 관점을 제시하였고 작품 ‘눈길’ 에서도 인물 간의 대화나 행동 양상 등을 통해서 특히나 ‘인간관계’ 에 주목하여 수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구체적인 문항을 제시한 활동으로 학습자의 흥미와 창의성을 이끌어내고 있지는 않지만, 작품의 수용방향을 제시하여 수용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어휘력 기르기는 특별히 ‘눈길’ 과 ‘학습 목표’ 에 관련된 학습 활동이라기보다는 이 교과서 전체적 구성 차원에서 마련한 활동이며 단원 안에서 구성 순서에 맞게 도입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재를 읽기 전에 앞서 “다음은 인간관계에 대한 모자(母子)간의 관점의 차이가 잘 드러나는 소설입니다. 관점의 차이에 주목하여 읽고 활동합니다.” 라는 안내를 통해 구체적인 수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해마당’ 에 속한 읽기 중 활동 질문들은, 학습자로 하여금 답을 찾고 말하게 하기 위한 질문의 형태보다는 작품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무엇에 집중하며 수용해야 할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먼저 작품의 구절에서 ‘나’와 ‘노인’의 사이가 심리적 거리감이 형성된 사이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체적으로 전통으로 표상되는 ‘노인’이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나’가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발견하며 그 차이에 주목하며 읽도록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다. ‘나’의 관념은 ‘받은 것이 없으니까 줄 것도 없다’는 ‘빛의 구조’로 인간관계를 정의하고 있다면 ‘노인’은 ‘무조건적으로 베풀고자 하며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람 사이를 지향하는’ 전통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관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행동이나 심리를 묘사한 부분을 통하여 전통의 특질을 잘 추출해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대인인 ‘나’와 ‘노인’의 관점의 차이를 통하여 전통과 변모된 오늘날의 인간관계에 대한 차이를 학습자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읽기 후 활동 1번은 다시 한 번 작품에서 인물의 생각을 표현한 말을 통하여 ‘나’와 ‘노인’의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번은 정리한 관점의 차이를 통하여 사람이 더불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학습자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전반적으로 학습목표를 비롯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는 잘 맞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작품에서 ‘변모된 전통의 인간관계 관점’을 나타내고 있는 ‘나’는 정(情)없고 메마른 오늘날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모든 것을 ‘빛의 구조’로 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년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된 노인과의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해 어머니이지만 노인을 불편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유년시절 어려워진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힘들고 외롭게 자수성가(自手成家)한 인물이며 그 어려웠던 성장과정에서 제대로 자식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주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상처를 지니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더불어 사는 삶’ 을 지향하는 전통과 ‘받았으면 돌려줄 것이 있고 받지 않았으면 줄 것이 없다’ 는 빛의 구조로 변모하고 있는 전통과 구분되거나 혹은 ‘더불어 사는 전통을 나타내는 어머니와는 다른 관점’ 으로 볼 수는 없으며, ‘나’ 의 신념과 행동은 성장과정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것이다. 사랑과 신뢰가 없는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 작품 내적인 의미에 대한 관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활동이 부족하다. 이는 인물의 언어와 행동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전통과 전통이 지향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을 지향하는 인물로 나누어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학습목표의 달성에 치중하다보니 이 글 전반에서 알아야 할 작품 주제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은 찾아보기 힘들고 이것은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학습자로 하여금 작품을 묘하게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는 ‘나’ 의 내적인 갈등과 오해가 풀어지는 과정을 통해 ‘나’ 와 ‘노인’ 의 관계의 회복의 움직임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갈등 형성원인의 이해와 해소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에게도 있을법한 훼손된 인간관계를 돌아보게 하여 인간관계 안에서 소중한 덕목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다시 말해, 주인공인 ‘나’ 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인 작품 주제에 대한 맥락의 이해를 돕는 활동 없이 ‘인간관계’ 자체라는 범주에 작품 속 인물의 행동과 언어를 대입해서 본다면, 당연히 작품 속 ‘나’ 는 인간관계를 계산적인 관계로 바라보는 인물로 설정되는 것이다. 내면적 갈등이 해소되어 가면서 ‘노인’ 과 같은 관점으로 변모해갈 가능성도 추측해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받은 사랑에 감사할 줄 알며 대가를 바라지 않

고 주고 싶은 사랑(혹은 신뢰)’이라는 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 없이 서로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도덕적인 바른 가치를 학습자에게 상기시켜보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의 주제적인 측면에도 접근하여 인물 간 갈등의 형성과 해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학습활동과 연결하여 구성했다면 학습목표를 더욱 깊이 있게 성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천재교육(김)의 학습활동은 학습자가 활동을 혼자 수행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도움말’과 경우에 따라 ‘자기 점검’을 문항 마다 기술해 놓았다. 이러한 해설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교과서를 통해 학습자와 소통을 강화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활동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작품을 어떤 방향으로 수용해야 할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구성을 지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③ 문학 수용의 결과를 내면화할 수 있는 창의적이면서도 실천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었는가.

내면화를 고려한 학습활동으로는 문항 3번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지금까지 인간관계에 대해 자신이 지녔던 관점을 돌아보고, 앞으로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인지 밝히는 글을 씁니다.”라는 활동이며, 1,2번의 활동을 통해 습득한 전통과 현대의 인간관계에 대한 지식을 그동안 자신이 지녔던 태도와 비교해보며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내면화의 과정을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내면화의 과정을 고려한 학습활동이 제시되어 있고, 또한 이것은 ‘수필’이라는 구체적인 텍스트를 생산해내는 실천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나의 관점’을 끌어내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점이 있어 아쉽다.

작품을 통해 ‘전통’ 과 ‘현대’ 로 구분되는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을 정리할 수 있었지만 학습자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보기까지의 단계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작품에서 ‘현대의 인간관계’ 를 상징하는 ‘나’ 는 ‘더불어 사는 삶’ 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빛의 구조’ 로 보고 있는데, 학습자 중에서는 인간관계를 ‘빛의 구조’ 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 학습자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습자는 성인들에 비해 ‘우정’ 과 ‘또래 관계’ 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청소년기이다. 그러한 청소년기에서 전통적인 인간관계의 장점에 자신을 비추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만의 구체적인 경험을 떠올려볼 수 있고 관계 속에서 일어난 갈등의 해소과정을 통해 깨달은 점을 바탕으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줄 수 있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더 깊은 내면화의 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학습자가 지녔던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 을 구체적으로 이끌어내고 되돌아볼 수 있도록 단계화한 문항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끌어낸 문항을 바탕으로 ‘수필’ 이라는 텍스트 창작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④ 지식과 기능, 맥락이 통합되어 문학적인 글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만들 수 있는 적용 가능한 학습활동인가.

지식과 기능, 맥락을 통합하여 구체적인 생산으로 이끈 활동은 앞서 살펴 보았던 학습활동 3번 문항과 학습활동에서 더 나아간 ‘적용마당’ 의 활동들이다. 천재교육(김)의 학습활동은 교과서에서 ‘적용마당’ 을 구성했다는 점이 앞에서 다뤘던 지학사(박), 비상교육의 교과서의 차별화되는 점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 ‘텍스트를 수용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변화의 특징에 맞춘 결과라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적용마당은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글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1번 문항은 현실에서 인간관계를 해나갈 때 제재에서 주장한 설득의 기술을 인용하여 ‘눈길’의 ‘어머니’에게 조언을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보는 활동이다. ‘더불어 사는 삶’이란 주었으니 받을 것이 있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줄 수 있고 서로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란 전통의 관점을 학습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활동이다.

문학적인 글을 통하여 작품 속 주인공에게 조언을 할 수 있고, 제재에서 주장한 설득의 기술에 담긴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간단하게 자신의 입장을 글로 써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끝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성인(聖人)들의 관점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정리된 학습자의 관점을 세워 표현할 수 있는 ‘생산’으로 귀결되고 있다. 앞서 살펴봤던 두 교과서에 비해 ‘수용을 바탕으로 한 생산’ 활동이 구체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㉔ 사회의 변화와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에 참여하였는가.

천재교육(김)의 교과서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하여 구성한 매체는 174쪽 ‘만화’이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제재를 학습자가 좀 더 수용하기 쉽도록 구성하기 위해 ‘만화’라는 매체를 사용하였다. 만화 매체와 다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제재 중간에 그림으로 장면을 표현한 삽화 외에 ‘눈길’을 수록한 소단원 안에서 적극적인 매체 활동은 찾아볼 수 없다.

(4) 미래엔 컬처그룹 국어(상)

1) 미래엔 컬처그룹 단원의 구성

단원의 구성		수록된 제재 또는 내용
대단원 들어가기		대단원 및 학습목표 소개
소단원 학습	소단원 열기	(1) 김종길, 육사(陸士)의 시 (2) 이청준, 눈길
	제재 학습	
	이해와 적용	
	정리하기	
대단원 마무리 하기	자기점검	학습목표와 관련한 자신의 성취도 파악하기
	우리말 우리글 사랑	일상 속에서 만나는 예술 비평

[표14] 미래엔 컬처그룹 ‘눈길’ 수록 단원의 구성

2) 학습활동 분석

수록 단원	6. 문학과 비평 (2)눈길
학습 목표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적 안목을 갖출 수 있다.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발견할 수 있다. ·예술 작품에 대한 비평문을 쓸 수 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10-문-(4)】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적 안목을 갖춘다. 【내용 요소의 예】 ◦ 비평은 작품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임을 이해하기 ◦ 작품에 대한 판단의 근거 마련하기 ◦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비평문 쓰기

[표15] 미래엔 컬처그룹 ‘눈길’ 수록 단원 학습목표와 교육과정 성취기준

①-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의 내용을 교과서의 학습목표에서 잘 구현하고 있는가.

이 단원에서 해당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10-문-(4)】 “문학작품에 대한 비평적 안목을 갖춘다.” 내용에 해당한다. 미래엔 컬처그룹은 내용요소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비평문 쓰기’를 ‘예술 작품에 대한 비평문 쓰기’로 【10-쓰-(5)】와 연계하여 학습목표로 설정하였고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적 안목을 갖추는 것’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요소의 항목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문학 작품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의미와 효과를 발견하며 나아가 개인의 관점에서 작품 내용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비평문을 쓰기까지 학습자는 작품을 읽고 문학 작품의 효용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곧 학습자가 자신만의 관점을 세워 가는데 거치게 되는 필수적인 단계이므로 학습목표로 따로 명시하여 세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학 작품이 자신에게 주는 효용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면 나아가 더 넓게 궁극적으로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도 떠올려볼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요소의 예를 학습목표에서 모두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포함하는 하나의 큰 맥락 안에서 내용요소의 예를 자연스럽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소단원 열기	다음은 ‘눈길’의 작가가 ‘고향’에 대한 마음을 담은 글이다. 글을 읽고, 작가가 고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읽기 중 활동	문학 작품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서 ‘눈길’을 감상해 보자. ① ‘장지문 밖 마당가에 작은 치자나무 한 그루가 한낮의 땀별을 견디고 서 있었다.’에 담겨 있는 ‘나’의 심리를 말해 보자.

	<p>② '노인과 나는 결국 그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처지였다.'고 한 이유를 말해 보자.</p> <p>③ '노인'이 당신의 소망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두고 '마지막 희망이 무너진 느낌'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말해 보자.</p> <p>④ '노인'이 지붕을 고치고 싶어 하는 이유를 말해 보자.</p> <p>⑤ '노인'이 빈집에 옷궤를 남겨 두고 아들이 올 때까지 매일 드나든 이유를 말해 보자.</p> <p>⑥ '나'가 옷궤를 불편해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p> <p>⑦ '위험한 고비', '위태로운 고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 보자.</p> <p>⑧ 노인이 자신을 '이 몸쓸 늙은것'이라고 지칭한 이유를 짐작하여 말해 보자.</p>										
<p>이해와 적용</p>	<p>* 이해 활동</p> <p>비평적 관점으로 '눈길'을 감상하고, 문학의 효용성에 대해 토의한다.</p> <p>1. 다음 내용에 근거하여 '나'와 어머니의 서로에 대한 태도를 정리해 보고, 그러한 태도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말해 보자.</p> <table border="1" data-bbox="370 1070 1216 1527"> <tr> <td data-bbox="370 1070 794 12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노인'이라고 부른다. · 어머니에게 빚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td> <td data-bbox="794 1070 1216 12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들의 말에 늘 '간단한 체념'을 한다. · 아들에게 자신의 소망을 직접 얘기하지 못한다. </td> </tr> <tr> <td data-bbox="370 1263 794 1330" style="text-align: center;">⇩</td> <td data-bbox="794 1263 1216 1330"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data-bbox="370 1330 794 1375" style="text-align: center;">'나'의 어머니에 대한 태도</td> <td data-bbox="794 1330 1216 1375" style="text-align: center;">어머니의 '나'에 대한 태도</td> </tr> <tr> <td data-bbox="370 1375 794 1527"></td> <td data-bbox="794 1375 1216 1527"></td> </tr> </table> <p>2. 다음의 사건에 대한 '나'의 심리를 정리해 보자.</p> <table border="1" data-bbox="370 1639 1216 1680"> <tr> <td data-bbox="370 1639 794 1680" style="text-align: center;">사건</td> <td data-bbox="794 1639 1216 1680" style="text-align: center;">'나'의 심리</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노인'이라고 부른다. · 어머니에게 빚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들의 말에 늘 '간단한 체념'을 한다. · 아들에게 자신의 소망을 직접 얘기하지 못한다. 	⇩	⇩	'나'의 어머니에 대한 태도	어머니의 '나'에 대한 태도			사건	'나'의 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노인'이라고 부른다. · 어머니에게 빚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들의 말에 늘 '간단한 체념'을 한다. · 아들에게 자신의 소망을 직접 얘기하지 못한다. 										
⇩	⇩										
'나'의 어머니에 대한 태도	어머니의 '나'에 대한 태도										
사건	'나'의 심리										

어머니가 지붕을 고치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침.	
아내가 어머니에게 옷궤 얘기를 꺼내 과거의 일을 상기시킴.	
어머니가 그동안 혼자서만 가슴 에 담아 두었던 이야기를 아내 에게 들려줌.	

3. 이 소설에 대한 비평문을 쓰기 위해 소설 내용과 관련된 질문지를 만들어 보았다.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을 친구들과 토의해 보자.

·아내가 ‘나’가 잊는 것을 알면서도 ‘나’가 꺼려하는 이야기를 어머니와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생님: 작품에 등장하는 세 인물의 관계 속에서 아내의 위치와 역할에 주목해 보세요.

토의 내용:

·‘빛 문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나’가 어머니에 대해 빛이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생님: ‘나’가 살아온 과정, 작품에서 옷궤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또 강한 부정은 때로 강한 긍정과 연결된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토의 내용:

·어머니가 '혼자 당신의 맘속으로만 지녀온 어떤 이야기'는 무엇을 가리키며, 작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선생님: 새벽 눈길의 동행과 관련하여 '나'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무엇인지, 그리고 몰랐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생각해 보세요.

토의 내용:

4. 다음은 이 소설의 내용'4'에 대한 독자의 생각이 드러난 글이다. 3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감상의 근거를 제시하여 비평문을 완성해 보자.

이 장면은 '나'의 아내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는 장면이다. 그리고 이 장면은 그토록 부정하던 '나'의 묵은 빛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아울러 이 장면에서 제목 '눈길'은 어머니가 걸어야 했던 힘겨운 삶의 길이면서도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
.....
.....
.....
.....
.....

5. 이 소설이 주는 교훈에 대해 친구들과 토의해 보자.

* 적용활동

<p>1. (가)와 (나)는 영화 '워낭 소리'에 대한 비평문의 일부이다. 두 비평문을 비교하며, 다음 활동을 해 보자.</p> <p>(1) (가)와 (나)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영화를 평가하고 있는 지 비교해 보자.</p> <table border="1"> <tr> <td>(가)</td> <td>·이 영화의 화면에서 담아내고 있는 장면을 중심으로 함.</td> </tr> <tr> <td>(나)</td> <td></td> </tr> </table> <p>(2) (가)와 (나) 같은 영화 비평문이 관객의 영화 선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해 보자.</p>		(가)	·이 영화의 화면에서 담아내고 있는 장면을 중심으로 함.	(나)	
(가)	·이 영화의 화면에서 담아내고 있는 장면을 중심으로 함.				
(나)					
<p>2.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나 공연의 비평문을 써 보자.</p> <table border="1">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한 장면이나 인상적인 장면을 예로 들어가며 서술한다. ·작품에 대한 심미적 경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서술한다. ·작품의 독특한 기법이나 표현 방식이 내용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서술한다. ·등장인물(혹은 주연 배우)의 연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 ·작가의 작품 의도와 감독의 연출 능력을 평가한다.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한 장면이나 인상적인 장면을 예로 들어가며 서술한다. ·작품에 대한 심미적 경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서술한다. ·작품의 독특한 기법이나 표현 방식이 내용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서술한다. ·등장인물(혹은 주연 배우)의 연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 ·작가의 작품 의도와 감독의 연출 능력을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한 장면이나 인상적인 장면을 예로 들어가며 서술한다. ·작품에 대한 심미적 경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서술한다. ·작품의 독특한 기법이나 표현 방식이 내용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서술한다. ·등장인물(혹은 주연 배우)의 연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 ·작가의 작품 의도와 감독의 연출 능력을 평가한다. 					

[표16] 미래엔 컬처그룹 '눈길' 수록 부분 학습활동 정리

①-2. 교과서의 학습목표를 학습활동에서 잘 반영하여 구성하였는가.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비평적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록 ‘이해활동’ 3번에서 작품 내용에 대한 심층적 해석을 모둠 활동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토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4번에서 교과서에서 제시한 비평문의 일부를 뒤이어 작성해보도록 하였다. 작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성격의 비평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과서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해활동 5번은 문학이 우리 삶에 주는 긍정적 의미와 효과를 발견하고자 했던 학습목표에 관련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술 작품에 대한 비평문을 써보는 활동은 적용활동 1,2번에 해당하는 활동이며 전체적으로 학습목표로 제시한 내용을 빠짐없이 학습활동에서 반영하고 있다.

㉔ 학습활동들이 작품을 섬세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작품과 관련되는 다양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발견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는가.

미래엔 컬처그룹에 수록된 ‘눈길’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10-문-(4)】 내용요소에 해당한다. 이 학년별 성취기준의 내용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성취기준은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적 안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학습자가 자신이 마련한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눈으로 작품을 보는 시각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경우 비평문 쓰기는 문학 작품을 자기 식으로 보되 최소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도록 하는 일종의 훈련장이 된다. 비평이 작품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작품을 무조건 내적으로만 보는 것이고, 또 그렇게 자기 식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은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평문 쓰기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문학작품을 보는 안목을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의 내용은 작품에 대한 학습자만의 비평적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적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이 구현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과 문학 작품의 전체 의미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유의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작가가 작품을 쓴 의도, 작품의 표현 방식,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 해당 작품과 다른 작품과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감상을 체계화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가 작품 속에서 드러난 인물의 대사와 행동 등을 통해 내용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작품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고 주관적인 감상을 객관화된 시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작품에 관련된 다른 언어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비평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엔 컬처그룹의 ‘소단원 들어가기’의 학습활동은 작품을 지은 작가가 고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 학습자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작가와 관련된 제재를 실어놓았다. 작가의 경험이 작품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며 작품과 관련된 맥락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 단원의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비평 기준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작품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할수록 좋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제재에서 나타나는 ‘고향’은 도회에서 익혀온 거짓 의상과 속임수의 몸짓들이 고향의 깨끗하고 순진한 풍

52) 교육과학기술부(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 2 국어』, 58쪽.

물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이른바 ‘자기 폭로와 정화’의 기능을 하고 있다. 작품 ‘눈길’에서 주인공 ‘나’가 ‘고향’에서 물어냈던 유년시절을 떠올리게 되며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폭로 그리고 정화’를 맞본다는 점에 있어서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읽기 중 질문은 먼저 학습자가 문학 작품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서 ‘눈길’을 감상할 수 있도록 수용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단원의 학습 목표 두 번째에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제시할 수 있다’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읽기 중 학습활동의 질문들은 작품의 내용에서 인물의 대사와 행동에서 드러나는 심리, ‘노인’과 ‘나’의 관계, ‘나’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옷궤’와 관련된 ‘나’의 심리 등 작품의 내용을 깊이 있게 소화하기 위한 핵심 내용과 주제 중심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미래엔 컬처그룹의 ‘비평문 쓰기’ 6단원에서 비평 기준으로 방향을 설정했던 것은 작품의 의도, 작품에 드러난 표현방식, 작품의 효과, 해당 작품과 다른 작품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며 쓰되 자신의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시⁵³⁾하는 것이었으므로 작품에 드러난 표현방식을 통한 내용 파악 질문을 설정한 것은 비평기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읽기 후 학습활동인 ‘이해와 적용’에서는 전체적으로 ‘눈길’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학의 효용성에 대하여 토의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10-문-(4)】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비평문 쓰기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문학작품을 보는 안목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므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해활동 1번부터 읽기 중 질문에서도 중점을 두었던 것처럼 ‘나’와 ‘노

53) 윤여탁 외(2010). (주) 미래엔 컬처그룹, 『고등학교 국어(상)』, 264쪽.

인' 이 서로에 대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였고 2번 문항은 제재에서 드러난 사건을 통해 '나'의 심리를 정리하였다. 모둠 활동 3번 문항은 비평문을 쓰기에 앞서 작품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중심 내용인 '갈등 및 해소'와 관련하여 모둠구성원들과 토론하며 의견을 정리해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3번 문항에서 토론하여 이끌어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짧게 비평문을 완성하는 활동 4번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5번은 '나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토의하는 것을 끝으로 문학의 효용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전체적으로는 학습활동의 문항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평문을 쓰는 것이 작품내용을 분석하면서 상황 속에서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감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학습자만의 판단이나 평가가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내용에 대한 학습자만의 판단과 평가를 포함한 구체적인 관점을 세워주는 활동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이해활동 4번에서 교과서에서 제시한 글에서 뒤를 잇는 내용들은, 그대로 작품 분석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느낌을 근거와 기준을 갖춰 평가와 판단을 할 수 있는 '비평문'과 '느낌의 준거를 잘 드러내며 표현한 감상문'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학습자일 경우 학습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단원(1)에서 지식검색으로 '비평문의 특성' 54과 '문학 비평문을 쓸 때

54) 윤여탁 외(2010). (주) 미래엘 컨치그룹, 『고등학교 국어(상)』, 224쪽.

비평이란 작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작품의 가치를 판단·평가하는 일을 의미한다. 올바른 비평을 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점견이나 경험에 갇히지 않아야 하며, 일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들 들어 평가해야 한다.

비평문에는 작품에 대한 글쓴이의 판단이 드러나야 한다. 이 점에서 비평문은 주관적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글쓴이의 판단에 동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들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성격도 지닌다. 따라서 비평문을 읽을 때에는 작품에 대한 글쓴이의 판단과 그에 대한 근거들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유의점' 55)에 대해 실어놓았는데 이것은 다른 언어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비평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적용활동으로 영화 '워낭소리'를 감상한 후 각기 다른 관점으로 쓴 비평문 두 개를 소개하며 차이점을 묻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짧은 비평문의 예시가 활동을 위한 제시라지만, 다른 사람이 쓴 비평문을 읽는 것이 학습자로 하여금 '비평문 쓰기'에 대한 이해 맥락을 더욱 넓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 제공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사람이 쓴 비평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본 뒤 영화나 공연의 비평문을 직접 써보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고 있다. 비평문을 쓸 때 막연하지 않도록 어떤 점을 기준으로 세워 어떻게 써야할 지에 대한 맥락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 단원이 '문학작품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세워 비평문을 써보는 것'이 큰 주제라면 '눈길' 제재의 주제 내용에 대한 수용을 바탕으로 비평문을 써보는 것까지의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작품내용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맥락과 비평문 쓰기에 대한 맥락을 적절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㉓ 문학 수용의 결과를 내면화할 수 있는 창의적이면서도 실천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었는가.

문학 수용의 결과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한 학습활동은 '이해활동'에서

55) 위의 책 228쪽.

문학 비평문을 쓸 때 유의점

- 작품의 의도, 작품에 드러난 표현 방식, 작품의 효과, 해당 작품과 다른 작품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쓴다.
- 문학 작품을 대하는 비평적 관점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 문학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 문학 작품에 대해 판단 근거를 제시한다.

5번 문항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이 소설이 주는 교훈에 대해 친구들과 토의해 보자.” 라는 내용이며, 작품 수용을 통해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말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결국 비평문을 쓰는 것은 ‘문학 작품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깨달음이나 교훈’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느낌과 생각을 비롯하여 ‘나에게 주는 의미’ 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은 단원 목표의 성취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게 작품의 어떤 점이 긍정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지 일상에서 주인공의 심정과 비슷한 느낌을 가져본 경험 등을 바탕으로 더욱 구체화한 문항으로 구성하거나, 문항에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맥락이 주어졌다면 좀 더 현장에서 활동을 수행할 때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비평문을 쓸 때에도 학습자의 느낌과 생각을 체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④ 지식과 기능, 맥락이 통합되어 문학적인 글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만들 수 있는 적용 가능한 학습활동인가.

단원 자체가 ‘비평문 쓰기’ 가 목표인 만큼, 실제로 비평문을 쓰는 활동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해활동’ 에서 4번 문항과 ‘적용활동’ 에서 2번 문항은 모두 작품에 대한 심미적 수용과 비평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생산으로 나타내고 있다. ‘눈길’ 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과 함께 비평문을 쓰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적용활동에서는 다른 제재를 이용하여 비평에 대한 지식과 함께 예술작품에 대한 비평까지 작품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⑤ 사회의 변화와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에 참여하였는가.

‘눈길’ 을 수록한 소단원에서는 영화 ‘워낭소리’ 에 대한 제재를 바탕으

로 비평문을 써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예시를 든 비평문에서 영화의 내용과 함께 장면 사진이 제시되어 있다. 예술작품 중에서도 특히 ‘영화’라는 매체를 사용하여 작품의 수용과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눈길을 수록한 대단원 전체에서 단원을 담으며 보충해주는 활동의 성격을 지닌 ‘우리말 우리글 사랑’이라는 장에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예술 비평’으로 아마추어 사진작가의 작품(56)을 수록하였다.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같은 사진이지만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 댓글들을 제시하였는데 인터넷이라는 익숙한 매체를 통해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비평을 찾아볼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한 점이 창의적이다. 인터넷은 학습자로 하여금 익숙한 매체로 다가갈 수 있고, 작품 사진과 네티즌의 댓글은 예술 작품에 대한 비평에 대해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적절한 사용으로 보인다.

2. 김유정의 <봄-봄>을 수록한 교과서 학습활동

(5) 천재교육(김) 국어(상)

1) 천재교육(김) 단원의 구성

단원의 구성	수록된 제재 또는 내용
단원의 길잡이	학습목표, 소단원 목차

58) 위의 책 288쪽.

‘일상 속에서 만나는 예술 비평’

예전에는 예술가와 일반인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은 수많은 아마추어 예술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다음은 한 아마추어 작가가 인터넷에서 올린 사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게시판에 짧게 표현해 놓았다. 사진과 게시판의 글을 보며, 이 작품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해 보자.

소 단 원	지식마당	(01) 느낌 분석하기 (02) 비평문 쓰기	(01)	지식마당: 분석하여 판단하기 이해마당: 김소월, 진달래꽃 적용마당: 김유정, 봄봄
	어휘력 기르기			(02)
	이해마당			
	적용마당			
	선택활동			
단원의 마무리	종합, 평가			
심터	고정관념을 깨는 현대 예술의 세계			

[표17] 천재교육(김) '봄봄' 수록 단원의 구성

2) 학습활동 분석

수록단원	6. 예술과 비평 (01) 느낌분석하기 (적용마당) 봄봄
학습목표	·문학 작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 ·구체적인 근거를 갖추어 예술 작품에 대한 비평문을 쓴다.
소단원 학습목표	① 작품을 이루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평가합니다. ② 작품을 이루는 요소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판단합니다. ③ 작품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분석하여 평가합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10-문-(4)】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적 안목을 갖춘다. 【내용 요소의 예】 · 비평은 작품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임을 이해하기 · 작품에 대한 판단의 근거 마련하기 ·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비평문 쓰기

[표18] 천재교육(김) '봄봄' 수록 단원 학습목표와 교육과정 성취기준

①-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의 내용을 교과서의 학습목표에서 잘 구현하고 있는가.

천재교육(김)에 수록된 ‘봄·봄’은 6단원 예술과 비평에 수록되어 있다. 6단원 예술과 비평은 소단원 두 개로 나뉘어져있는데 소단원 01단원은 ‘느낌 분석하기’ 02단원은 ‘비평문 쓰기’의 단원이다. ‘봄·봄’은 소단원 01단원에서 두 번째 제재에 속하며 ‘지식마당’, ‘이해마당’, ‘적용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단원에서 ‘적용마당’에 수록되어 있다. 소단원 01단원은 느낌을 분석하는데 학습자의 느낌을 객관적인 분석의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대단원의 학습목표는 문학 작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예술작품에 대한 체계적인 비평문을 써 보는 것이다. 소단원 01에 해당하는 학습 목표가 대단원 학습목표의 첫 번째인 ‘문학 작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 해보는 목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학작품에 대한 비평적 안목을 갖추기 위해 작품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평이 학습자만의 주체적 판단임을 이해하는 내용요소의 예들을 포함하고 있는 학습 목표이다. 대단원 학습 목표를 다시 소단원에서 세분화하여 문학작품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해야 할지, 그리고 학습자에게 주는 의미를 분석해 평가하면서 ‘비평이 학습자만의 주체적 판단임을 이해’ 하는 성취기준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대단원 학습목표의 두 번째인 ‘예술작품에 대한 비평문 쓰기’는 앞서 분석했던 미래엔 컬처그룹의 학습목표와 마찬가지로 【10-쓰-(4)】의 내용과 연계된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적용 마당	다음은 장인이 될 마음과 데릴사위인 며슴이 혼인 문제로 갈등을 빚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인물들의 말과 행동이 주는 느낌에 주목하여 읽습니다.										
읽기 중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순이의 키를 재고자 할 때, '나'의 생각과 행동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웃음의 요소를 발견합니다. ·생각이 나아가는 방향이 보통의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견주어 봅니다. ·점순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나'의 심정이 어떨는지 짐작합니다. ·점순이의 행동을 이전의 행동과 비교해 보고,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합니다. <p>.....</p> <p>김유정(金裕貞) 1930년대에 활동했던 소설가입니다. 어두운 농촌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농민들의 곤궁한 삶을 해학적인 시각으로 그렸으며, '소낙비', '동백꽃' 등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p>										
읽기 후 활동	<p>1. 작품을 읽고 갖게 된 느낌을 정리하고,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한 요소를 분석하여 평가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331 1032 1195 1267"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5%;">종합</td> <td style="width: 15%;">느낌</td> <td style="width: 70%;"></td> </tr> <tr> <td rowspan="3">요소</td> <td>행동</td> <td></td> </tr> <tr> <td>생각</td> <td></td> </tr> <tr> <td>표현</td> <td></td> </tr> </table> <p>(도움말) 사랑의 느낌은 대체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진선미(眞善美)에 대한 생각을 기준으로 하여 생깁니다. 참됨, 착함, 아름다움의 세 기준에 비추어 작품 속의 요소들을 평가하는 분석을 하면 됩니다.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니 처음의 느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느낌을 수정하면 됩니다.</p> <p>(자기알림) 이 활동이 막연하다면 이해 활동 2를 상기합니다. 이해 마당</p>	종합	느낌		요소	행동		생각		표현	
종합	느낌										
요소	행동										
	생각										
	표현										

	<p>활동 2는 시에서 느낌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었다면, 여기서 소설에서 느낌을 형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p> <p>2. 활동1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느낌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분석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의 표현 방식: • 인물과 사건 관계: <p>(도움말) 느낌은 작품을 구성하는 어느 한 요소에서만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결합하여 얻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요소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가에 따라 작품의 가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p> <p>3. 활동1과 2의 탐구 결과를 바탕으로 ‘봄봄’에 대한 비평문을 쓰려고 합니다. 글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핵심어를 정해 주제문을 써 봅니다.</p> <p>(도움말)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떤 말로 나타낼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p>
--	--

[표19] 천재교육(김) ‘봄봄’ 수록 부분 학습활동 정리

①-2. 교과서의 학습목표를 학습활동에서 잘 반영하여 구성하였는가.

작품을 이루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은 읽기 후 활동 1번에 해당하며, 작품을 이루는 요소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판단하는 것은 활동 2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작품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분석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목표는 앞의 목표들을 모두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로 볼 수 있다.

제재를 읽기 전에도 ‘작품이 나에게 주는 느낌’을 생각하며 읽도록 지시하였고, 읽기 후 활동 1,2번 역시 작품이 나에게 주는 느낌이 어떤 요소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찾아보는 것이므로 먼저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느낌과 생각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소단원에서 학습목표로 세운 항목들은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㉔ **학습활동들이 작품을 섬세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작품과 관련되는 다양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발견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는가.**

앞에서 분석한 미래엔 컬처그룹의 학습활동에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10-문-(4)】에 해당하는 내용과 같다. 학습자가 작품 속에서 드러난 인물의 대사와 행동 등을 통해 주제 내용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작품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주관적인 감상을 객관화된 시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작품에 관련된 다른 언어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비평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천재교육(김)의 단원 구성은 비평문을 쓰기 위해 느낌을 적절한 근거를 들어 표현하며 평가하는 단원과 비평문을 실제로 써보는 단원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학습자의 느낌을 작품에서 드러난 표현기법이나 인물의 대화, 행동 등을 통해 근거를 들어 표현하며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한 학습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그래서 작품의 어떤 요인이 학습자에게 무슨 의미를 주었는지 비평맥락을 고려한 학습활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적용마당에서 제재를 읽기 전에 먼저 작품에서 인물들의 말과 행동이 주는 느낌에 주목하여 읽도록 수용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읽기 중 질문들은 인물의 행동이나 언어를 통한 해학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부분에서 학습자의 느낌을

문고 있고 웃음의 요소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작가 ‘김유정’에 대한 짧은 소개는 해학적인 글을 주로 썼던 작가의 특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여 작품 특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읽기 후 질문은 제재를 읽고 난 후 종합적인 느낌을 작품 속 인물들의 행동, 생각, 표현에서 근거를 들어 써보도록 하였다. 문학 작품에 대한 느낌을 객관적인 요소에 의해 분석할 줄 알도록 하기 위한 비평맥락에 의한 활동이다. 또한 우리에게는 느낌을 자아내는 요소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작품의 표현 방식과 사건 전개 등이 서로 결합하여 느낌이 주어지는 것을 학습자로 하여금 인지하도록 하였다.

3번 활동은 앞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짧은 비평문을 써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자 본인에게 가장 인상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장면과 내용을 중심으로, 그것이 왜 그러한 느낌을 가져다주는지 표현방식이나 사건 전개 등을 근거로 들어 평가하며 써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비평문을 본격적으로 써보기 앞서 작품을 볼 때 ‘어떤 관점’을 지니며 바라보아야 할 것을 알게 하며, 작품을 보는 안목을 바탕으로 스스로 주체가 되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각의 중요성을 미리 인지시킨 학습활동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작품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평맥락과 소통’을 배경으로 한 학습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문학 수용의 결과를 내면화할 수 있는 창의적이면서도 실천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었는가.

자신에게 주는 느낌을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단원의 뚜렷한 성격상, 작품 속의 상황과 유사한 경험이나 정서를 찾아 내면화하는

학습활동은 따로 수록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지식과 기능, 맥락이 통합되어 문학적인 글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만들 수 있는 적용 가능한 학습활동인가.

비평문을 직접 써보는 단원이므로 읽기 후 활동 1,2번에서 본인의 느낌과 분석한 느낌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평문을 써보는 활동 3번으로 귀결되고 있다. 단원 전체 지식마당과 이해마당에서 습득한 ‘비평’에 관한 지식과 활동을 바탕으로 적용마당에 이르러서 직접 글을 생산하는 ‘실제’로 마무리 되고 있다.

⑤ 사회의 변화와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에 참여하였는가.

소단원 01을 비롯하여 대단원 전반적으로도 변화된 사회와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구성한 학습활동은 찾아보기 힘들다.

6) 디딤돌 국어(상)

(1) 디딤돌 단원의 구성

단원의 구성		수록된 제재 또는 내용
단원의 길잡이		단원 학습 목표
소단원	도입 활동 및 읽기 전에	(1) 정호승,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제재 학습	(2) 김유정, 봄 ·봄
	학습 활동	(3) 유득공, 봄이 온 서울에 노닐다
심화 학습		조지훈, 낙화 ·김훈, 자전거 여행
단원의 마무리		정리하기, 스스로 점검하기, 단원을 마치며

[표20] 디딤돌 ‘봄봄’ 수록 단원의 구성


(2) 학습활동 분석

수록단원	1. 문학, 희망을 열다 (2) 봄봄
학습목표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발견할 수 있다.
소단원 학습내용	·소설 속 인물에 대해 관찰하고 공감하기 ·문학 작품의 해학이 삶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 생각하기
교육과정 성취기준	【10-문-(1)】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발견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문학의 효용에 대해 이야기하기 ◦ 작품 읽기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토론하기 ◦ 작품을 읽고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하기

[표21] 디딤돌 ‘봄봄’ 수록 단원 학습목표와 교육과정 성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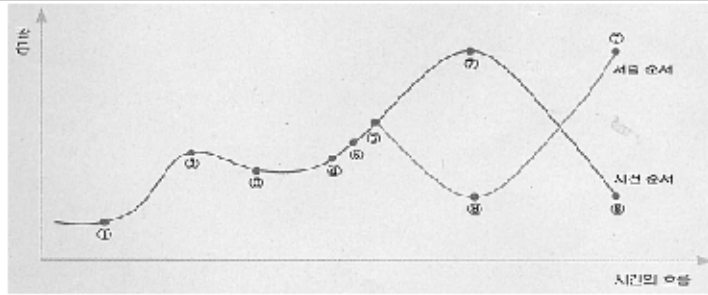
①-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의 내용을 교과서의 학습목표에서 잘 구현하고 있는가.

디딤돌 교과서는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발견 한다.” 의 성취기준을 그대로 학습 목표에 구현하였다. 문학의 효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작품을 읽고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해보는 활동은 따로 목표로 세우지는 않았다. 소단원 학습 내용에서는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의미와 효과를 발견 한다.” 의 기준을 범위를 좁혀서 작품의 해학성이 삶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으로 구체화하였다.

<p>읽기 전 활동</p>	<p>◎ 신라 시대 무덤에서 발굴된 할아버지 얼굴 모양의 흙 인형을 감상해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인형은 웃는 모습일까, 우는 모습일까? ·무덤 속에서 웃는 모습과 우는 모습, 어느 쪽이 어울릴까? ·우리 삶에서 웃음과 울음이 지닌 가치는 무엇일까?
<p>읽기 전에</p>	<p>웃음은, 단순한 엄숙함으로 계속되는 삶의 일상을 깨뜨리고 삶에 대한 건전한 의식을 불러넣는다. 그러면서 웃음은 같이 웃는 다른 사람들과의 일체감을 유발하고 삶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갖게 한다. 특히 문학 작품이 유발하는 웃음은 독자들이 삶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긍정적 사고를 하게 한다.</p>

	<p>이 작품은 1930년대의 농촌 총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①주인공 '나'는 우직하지만 어리석은 정도로 순박한 청년이다. 그는 '점순이'에게 장가를 들고 싶어 하지만 탐욕스럽고 교활한 장인은 이런저런 핑계로 성례를 미루기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소설은 등장인물을 첨예하게 대립시켜 극한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 대신 ②전통적이고 토속적인 해학과 인간미를 통해 긴장을 해소한다. 마치 상갓집에서도 떠들썩하게 웃고, 무덤 속에도 웃는 얼굴의 인형을 넣어 두는 것처럼, 웃음으로 눈물을 닦고 갈등을 풀어 주는 것이다.</p> <p>① '나'는 어리석고 '장인'은 교활하다는데, 이러한 점이 어떻게 웃음을 자아낼까?</p> <p>② 해학이란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과 행동을 뜻한다. 우리의 전통적인 문학이 해학을 많이 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p>
읽기 중 활동	<p>· '그럼 정말로~경오가 옳지 않겠나.'의 청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또 화자의 이러한 말하기 방식이 갖는 효과를 말해 보자.</p> <p>· 점순이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과 '나'의 심리를 나타낸 부분을 지적하여 보자.</p> <p>· '나'가 구장에게 말을 바꾸어서 다시 한 이유는 무엇일까?</p> <p>· 구장의 말과 '나'의 생각을 구분하여 서술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p> <p>· '이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인가?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를 정리하여 보자.</p> <p>김유정(金裕貞) (1908~1937) 소설가. 1935년 소설 '소낙비'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노다지'가 '중외 일보'에 각각 당선됨으로써 문단에 등단하였다. '봄봄', '금 따는 콩밭', '동백꽃', '따라지' 등의 소설을 내놓았고 29세에 요절할 때까지 30편에 가까운 작품을 발견했다.</p> <p>(꼭 알아두기) '봄봄'과 해학</p>

	<p>해학(諧謔)이란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이다. 여기에서 익살스럽다는 것은 딱딱하게 제도화된 관념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삶의 모습을 긍정하려는 태도와 관련이 깊다. 그러나 해학은 단순히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기만 한 우스갯소리와는 다르다. 품위가 있다고 함은 그런 뜻이다. 이 소설 속의 순진한 인물이 웃음을 유발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파스한 연민과 너그러움이 들어 있는 것이다.</p> <p>(더 알아두기)</p> <p>민중에 대한 김유정의 인식은 그의 해학적 문체와 앞과 뒤를 이룬다. 그의 민중에 대한 애정은 농민의 전통적 언어 감각으로 향토적 정서를 생생하게 제시함으로써 나타난다. 하지만 소설이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흥미를 주어야 한다면 그는 해학적 문체로 후자를 얻은 대신 전자는 희생시킨 셈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당대 농촌 사회의 계층 간 갈등을 비롯한 현실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데 소홀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p>
<p>학습 활동</p>	<p>* 내용 이해하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설 속에 등장하는 토속어를 정리하여 조사해 보고, 그중 몇 가지를 택해 문장을 만들어 보자. 2. 다음은 소설의 전개 과정을 실제 사건이 일어난 순서와 서술된 순서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①~⑥에 들어갈 사건들을 <보기>에서 골라 배열해 보자.



〈보기〉

- ㉠ 몽태네 집으로 가서 장인의 험담을 들음.
- ㉡ 아침상을 내온 점순이가 바보라며 나를 부추김.
- ㉢ 혼자 화전발을 갈고 있는데 점순이가 나를 부추김.
- ㉣ 배가 아프다고 풀 위에 쓰러지자 장인이 뺨을 때림.
- ㉤ 장인의 수염을 잡아채고 바지가랭이를 잡으며 싸움.
- ㉥ 점순이가 달려들어 내 귀를 잡아당기며 장인 편을 들.
- ㉦ 장인이 터진 내 머리를 치료해 주며 달래자 다시 일터로 감.
- ㉧ 장인을 끌고 구장에게 갔으나 결론 없이 다시 논으로 돌아옴.

* 작품 분석하기

3. 이 작품의 구성 요소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 (1) 인물: 등장인물 간의 애증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 (2) 사건: 사건의 전개상 '점순이'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 (3) 배경: 시간적 배경인 '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4. 상대방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호칭의 변화에 유의하여 말해 보자.

(1) “장인님! 인젠 저..... .”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그 대답이 늘

“이 자식이! 성례구 뭐구 미쳐 자라야지!” 하고 만다.

↓

(2) 골김에 그저 이놈의 장인님 하고 댁돌에다 메꽃고 우리 고향으로 내뺨까 하다가 꺾꺾 참고 말았다.

↓

(3)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인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인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유.....”
이렇게 맹서를 하며 불라살야 지계를 지고 일터로 갔다.

(도움말) 이 작품의 화자는 심리의 변화에 따라 장인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다.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왜 호칭이 달라지는지, 그때의 화자의 심리는 어떠한지 알 수 있다.

* 작품 감상의 효과 이해하기

5. 이 작품은 읽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어떠한 면에서 그러한지 다음의 요인에 따라 정리해 보자.

- (1) 인물들의 성격:
- (2) 사용하는 언어:
- (3) 처해 있는 상황:

6. 이 작품에는 모범적인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작품이 우리 삶에 긍정적 가치를 주는 이유와, 그 긍정적 가치가 무엇인지 생

	각해 보자. (모둠 활동)
--	----------------

[표22] 디딤돌 '뽐뽐' 수록 부분 학습활동 정리

①-2. 교과서의 학습목표를 학습활동에서 잘 반영하여 구성하였는가.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발견하도록 문항으로 구체화한 학습활동은 읽기 후 학습활동에서 6번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모범적인 인물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작품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가치를 주는 이유와, 그 긍정적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의 질문이다.” 6번 활동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첫 번째 요소였던 문학의 효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세 번째 요소인 ‘자신의 삶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 이야기’ 하는 요소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소설 속에 나타난 인물을 관찰하고 생각해보는 활동은 읽기 중 질문들과 읽기 후 학습활동의 4,5번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다.

내용이해와 작품분석을 통하여 인물, 사건, 문체를 통해 작품의 ‘해학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궁극적으로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② 학습활동들이 작품을 섬세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작품과 관련되는 다양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발견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는가.

이 성취기준은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학습자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발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개인적 차원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문학의 효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되,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 문학의 효용에 대해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문학은 전통적으로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기쁨과 지식(혹은 지혜)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큰 틀은 대개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이 지혜를 준다거나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탐구하고, 의식하지 않았던 새로운 점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서 성찰한다는 것은 대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학이 지닌 이러한 기능을 학습자가 이해하고 그 바탕에서 문학을 읽으면서 그 지혜를 얻고 기쁨을 향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학의 개인적 효용이나 사회적 효용은 무관한 것이 아니어서 둘 중 어느 하나도 경시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학습자의 생활 맥락에서 문학을 이해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차원으로 확산하는 방향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겠다.⁵⁷⁾

【10-문-(1)】 교육과정 학년별 성취기준 내용에 따르면 이 단원에서 중요시하는 맥락이란 문학 작품이 학습자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즉 개인의 삶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생활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문학을 읽으면서 배우게 된 점이나 삶의 지혜를 얻게 된 것,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 더욱 인식하는 것, 학습자의 정체성에 대해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것 등을 포함하여 볼 때 문학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와 의미를 가져다주는지를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 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구성한 학습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읽기 전에 활동은 먼저 ‘봄·봄’의 가장 큰 특징인 ‘해학성’이라는 특징과 연결시키며 감정의 가치에 대해 인식시킬 의도로 학습자로 하여금 삽화로 실린 흥 인형의 표정을 살펴보며 ‘웃음’과 ‘울음’이 우리 삶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재를 읽기 전에 우리의 전통

57)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 국어』, 59쪽.

적인 문학이 해학을 많이 담고 있는 이유, 보통 상황에서 주인공이 언짢아
야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독자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통해 어렵고 부정적인 현실을 ‘웃음’으로 긍정하며 살아온 조
상들의 삶의 방식과 이러한 ‘웃음’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
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하였다.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인 의미와 효과 알기’라는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특히 ‘해학성’이
주는 효과에 대해 탐구해보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봄·봄’을
읽을 때 학습자가 어떠한 점에 주목하며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맥락을 이
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흙 인형을 통해 웃음과 울음의 가치를 파악해
보는 활동’은 본격적으로 제재를 읽기 전에 학습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활동이다.

읽기 중 질문들은 다른 교과서에 비해 수록된 양이 많지는 않은 편이다.
인물의 말하기 방식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효과와 인물 간의 대화와 작품의
서술 방식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성격 등을 통해 작품 내용에 더 가까이 다
가가고자 하였다.

또한 ‘꼭 알아두기’를 통해 해학의 의미, ‘더 알아두기’를 통해 김유정
소설의 현실 인식과 문체에 대해 알린 것은 ‘봄·봄’을 내재적인 관점 뿐
아니라 외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며 작품을 더욱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맥
락을 제공해 준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읽기 후 학습활동은 먼저 ‘내용 이해하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설 속에
등장하는 토속어를 정리하고 몇 가지를 택해 문장을 만들어보는 활동과 소
설 전개 과정을 실제 사건이 일어난 순서와 서술된 순서로 나누어 도표에
따라 배열하는 활동이다. 작품의 구조가 사건의 시간과 서술의 순서가 바뀌
어있는 역순행적 구성임을 알도록 하는 것과 작품의 개괄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토속어를 정리해보는 활동은 작품의 주요한 특징인 토속어의 사용으로 이루어진 문체의 특징을 인식하며 토속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활동이지만, 몇 가지 예시를 들어 문항을 구성했다는 학습자가 접근하기 좀 더 수월했을 것이다. ‘작품 분석하기’의 활동은 작품의 구성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에 따라 인물 간 애증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에 따라 점순이의 역할은 무엇인지, 배경에서 ‘봄’의 상징성은 무엇인지 묻고 있다. 4번 활동은 호칭에 따라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말해보는 활동이다. 이어서 작품을 분석하며 수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5,6번에서 인물의 성격, 언어, 상황요소가 어떻게 ‘웃음’을 자아내게 하며 모범적인 인물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가치를 주는 이유와 그 가치의 의미에 대해 토론해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작품에 대한 이해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에서 ‘해학성’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의미에 대해 학습하여 작품을 수용하였으나, 교육과정 성취기준 내용에서 강조했던 ‘학습자의 개인 생활맥락과 관련된 활동’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특히 ‘봄·봄’의 ‘해학성과 웃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지만 ‘학습자 개인의 삶’에 미치는 효용성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③ 문학 수용의 결과를 내면화할 수 있는 창의적이면서도 실천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었는가.

교육과정은 문학이 삶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의미에 대해 학습자의 생활 맥락에서 문학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인적 차원에서 시작하여 사

회적 차원으로 확대시켜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디딤돌의 학습 활동은 학습자의 직접적인 경험과 작품 내적인 맥락을 연결 짓거나 문학 수용을 통해 해학성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개인적 차원’에 대한 활동은 다루지 않고 있다. 결국 문학 수용의 결과를 내면화할 수 있는 활동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④ 지식과 기능, 맥락이 통합되어 문학적인 글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만들 수 있는 적용 가능한 학습활동인가.

작품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작품이 우리 삶에 긍정적 가치를 주는 이유에 대해 말해보는 모둠 활동으로 귀결되므로 작품에 대한 이해에서 나아가 적용 가능한 생산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사회의 변화와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에 참여하였는가.

‘봄봄’을 수록한 단원에서 매체를 활용한 수용과 생산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단원에서도 특별하게 다매체를 활용한 학습활동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IV. 사례분석을 통한 학습활동 반영양상과 개선방안

1. 사례분석을 통한 학습활동 반영양상

Ⅲ장에서 개정교육과정의 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을 반영하여 5가지의 기준을 세워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6편의 학습활동의 문항을 분석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9 개정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의 학습활동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반영 양상이 어떠한지 종합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학습목표와의 상관성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한 학습 교재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따라 교과서의 학습 목표가 정해진다. 단원을 구성하는 학습활동 또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따라 내용과 방향이 설정된다. 따라서 성취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활동의 내용이 학습 목표에 따라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분석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 중 성취기준의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비교적 분석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었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내용요소의 모든 예를 학습목표로 명확하게 세운 것은 아닐지라도 세분화한 내용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학

습 목표를 세운다거나 학습목표로 세우지는 않았으나, 학습활동에서 내용요소의 예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교육과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습활동 또한 성취기준의 내용을 반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맥락의 이해를 고려한 작품 수용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무엇보다 ‘맥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앞에서 학습자가 관련 맥락을 포함하여 능동적으로 작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내용체계를 구성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작품을 섬세하게 수용하며 작품과 관련되는 다양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학습활동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원을 주도하는 성취기준의 다양성에 따라 흐름에 맞는 맥락을 살펴보았고 학습활동을 분석하였다. 같은 제재를 수록하고 있을지라도 기준으로 삼은 성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단원의 흐름을 주도하는 학습활동의 관련 맥락 또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먼저 【10-문-(3)】에 해당하는 내용은 학습자의 삶과 작품 주인공의 삶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삶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학습활동이 필요했고 지학사(박), 비상교육의 분석 단원이 해당되었다.

【10-문-(5)】는 작품에서 문학적 전통의 개념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용하기 위해서 작품의 갈래, 발상, 표현방법과 서사구조, 인물 유형 등에서 전통의 특질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오늘날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안한 학습활동이 필요했다. 분석한 교과서 중에서 천재교육(김)의 단원이 해당되었다.

【10-문-(4)】는 학습자의 느낌을 작품에서 드러난 표현기법이나 인물의 대

화, 행동 등을 통해 근거를 들어 체계적으로 표현하며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학습활동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작품의 어떤 요인이 학습자에게 무슨 의미를 주었는지 ‘비평 맥락’을 고려한 학습활동이 필요했으며 천재교육(김)과 미래엔 컬처그룹의 분석 단원이 해당되었다.

【10-문-(1)】은 학습자의 본인에 관해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것 등을 포함하여 볼 때 문학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와 의미를 가져다주는지를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 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생활 맥락’과 연관 지어 구성된 학습활동이 필요했고 디딤돌의 분석 단원이 해당되었다.

삶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지향했던 학습활동들은 작품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은 잘 제시되어 있었지만 학습자의 삶의 맥락과 작품의 맥락의 유사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활동은 문항의 수가 다소 부족했었다. 또한 그 문항이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문학작품의 인물들과 학습자의 비슷한 경험을 연결하되 학습자의 경험을 되돌아보게 하는 활동들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본질, 즉 중요한 핵심적 가치와 깊이 연결될 필요가 있었다.

전통의 특질을 이해하여 오늘날과 비교해볼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한 학습활동은 전반적으로 학습목표를 비롯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활동이었다. 그러나 상황맥락을 고려한 작품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활동도 포함된다면 더 깊은 작품의 수용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평맥락을 바탕으로 작품의 수용을 고려한 학습활동들은 ‘눈길’ 제재의 주제 내용에 대한 수용을 바탕으로 비평문을 써보는 것까지의 활동으로 적절하게 구성하였다. 작품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평문 쓰기’에 대

한 맥락을 적절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격적으로 비평문을 써보기 앞서 작품을 볼 때 ‘어떤 관점’을 지니고서 바라보아야 할 것을 알게 하며, 작품을 보는 안목을 바탕으로 스스로 주체가 되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각의 중요성을 미리 인지시킨 학습활동들이라고 볼 수 있었다. 단순히 작품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평맥락과 소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생활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을 수용하고자 했던 학습활동은 작품에 대한 이해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학습자의 개인 생활맥락과 관련된 활동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사회적 관점에서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특히 ‘봄·봄’의 ‘해학성과 웃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지만 ‘학습자 개인의 삶’에 미치는 효용성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작품과 관련된 정보 제공으로 관련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교과서들이 있었다. ‘꼭 알아두기와 ‘더 알아두기’ 또 ‘자료꾸러미’란을 통하여 작품 배경과 관련된 시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내용 이해만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작품의 외적인 측면에서 작품을 더욱 풍부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습활동 문항마다 ‘도움말’과 ‘자기 점검’을 달아 활동에서 출제자의 의도와 문제에 대한 맥락을 더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읽기 중 활동과 같은 경우도 학습자 혼자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보다, 제재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수용해야하는지를 가르쳐주어 학습자와의 소통을 강화한 특징이 보였다.

전체적으로 맥락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 교육과정에 따라 성취기준의 내용

에 맞는 맥락을 고려하여 학습활동을 구성하고자 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과서에서 작품의 문학적 맥락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또한 이전보다 더욱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관련 맥락에 대한 이해와 발견을 바탕으로 하여 섬세한 작품의 수용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학습활동을 포함한 단원에서 흐름을 주도하는 뚜렷한 성격과 특징으로 실현되고 있다.

3) 실천적 내면화를 지향한 작품 수용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에서 특히 강조되었던 부분은 문학의 내면화를 고려한 작품 수용이었다. 이에 따라 학습활동 또한 작품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삶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작품의 내면화를 지향하고자 학습자의 경험과 작품 속 주인공의 삶을 연결 짓는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문학과 삶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문학을 더욱 가깝게 느껴보도록 한 것이며, 학습자의 내면에 문학의 깊은 가치가 스며들 수 있도록 구성한 실천적 활동의 형태이다. 그러나 그 문항들이 좀 더 구체화 되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보였다. 예를 들어, ‘이 소설과 비슷한 본인의 체험’이라는 기준이란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게 좀 더 뚜렷하고 자세히 안내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작품이 다룬 가치가 자신의 삶과 관련되는 의의를 탐색하며 작품의 가치를 깊이 내면화할 수 있도록 문항의 아쉬운 점을 보완할 필요가 보였다.

어떤 교과서에서는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들은 잘 구성되어 있었으나 작품을 분석하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관점’을 끌어내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점이 있어 아쉬웠던 점이 보였다. 학습자를 되돌아보게

할 수 있는 단계화된 구체적 질문이나 주인공의 심정과 비슷한 정서를 느껴 본 경험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학습자의 삶’에도 무게를 두어 경험을 이끌어낼 만한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제시하였다면 좀 더 깊은 내면화를 고려한 작품 수용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4) 지식·기능·맥락을 통합한 문학 작품의 생산성 지향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을 주요한 특징으로 삼았는데, 학습한 내용이 적용 되어 ‘실제’로 표현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한 모든 교과서의 학습활동은 궁극적으로 ‘생산’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산’이란 배운 내용을 토대로 문학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표현하는 모든 활동들을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문학작품을 생산해내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학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반응을 다양한 형태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생산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분석한 교과서들은 작품에 대한 이해에서 나아가 궁극적으로 문학에 대해 말하거나 토론하거나, 글을 써보며 자신의 입장을 정리, 적용활동의 코너를 통해 배운 내용을 다른 텍스트 혹은 상황에 적용시켰다. 결국, 생산과 실재를 지향한 학습활동의 방향을 보여주었다.

5) 다매체 활용을 통한 작품의 수용과 생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매체’ 관련 내용을 확대하였고 학습활동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소설

‘눈길’ 과 ‘봄·봄’ 을 수록한 단원에서는 의외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성한 학습활동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미래엔 컬처그룹의 학습활동에서 영화라는 매체를 활용하거나 단원 끝에 인터넷 매체로 학습활동을 제시한 것 외에 다른 교과서에서 분석한 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반영한 결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9 개정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의 교과서에 비해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하여 삽입한 사진과 삽화의 제공이 풍부했고 구성 또한 학습자로 하여금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그러나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하여 매체를 활용한 학습활동의 반영 양상에 대해서는 교과서의 모든 부분을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원 안에서의 미반영여부만으로 매체를 소극적으로 수용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분석한 교과서의 예에서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실례를 보기 힘들었지만, 이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한 특징이므로 더 다양한 사례를 근거로 삼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학습활동 개선방안

앞서 교수학습방법론과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에 따라 분석한 학습활동 내용 중에서 아쉬웠던 부분과 지속시켜나가야 할 부분들을 중심으로 학습활동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자기 주도 학습을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활동

앞 장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자가 문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능동적으로 문학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문학 활동이 교사의 주도 하에 정답을 받아 적는 수동적인 형태가 되는 것을 지양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가 학습 활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스스로 활동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 때부터 ‘학습자 중심’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 되어 왔었다.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⁵⁸⁾ 뿐 아니라 학습활동도 학습자 입장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고 학습자가 주도하여 실재를 생산해내는 형태로 변화해왔던 것이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학습자의 주체적인 사고 과정을 돕기 위해서는, 맥락에 대한 이해를 스스로 발견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습활동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맥락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한다면 학습자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결국 교사의 설명으로 의존적인 수행 활동이 아니라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배려한 학습자 중심의 활동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습자가 작품에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이나 다양한 상호 텍스트적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언어자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분석한 모든 교과서에서 제재에서 낯선 어휘 풀이는 기본적으로 실어 놓았고, 교과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

58) 백안나(2011), 「2007 개정 교육과정과 국어 교과서의 현대소설 연구 : 박완서의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18쪽.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중심을 이루는 내용이 바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다. 개정 교육과정은 이와 관련한 교수-학습 방법을 비교적 자세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운용'의 (1)-(다)에서는 '학습 목표와 내용을 고려하여 직접 교수법, 문제 해결 학습법, 창의성 개발 학습법, 반응 중심 학습법, 가치탐구 학습법, 토의 토론회 교수법, 협동 학습법을 활용'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만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비해 작품을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료가 더욱 제공된 것은 사실이다. 분석한 교과서 중 디딤돌이나 지학사(박) 같은 경우도 읽기 중 질문을 포함하여 곳곳에 작품에 관련된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해놓았는데,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 학습자로 하여금 교과서 속에도 풍부한 언어자료를 제공받고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결국 작품의 수용을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이며 학습활동을 수행할 때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항마다 '도움말' 과 같은 접근 방향을 제시하여 학습자와 소통을 강화한다면, 교사 주도에서 학습자가 주도하는 형태의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내면화의 구체화를 실현한 학습활동

문학 수용의 결과를 내면화할 수 있는 창의적이면서도 실천적인 활동을 더욱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작품의 이해와 감상 및 평가의 결과를 학습자의 삶과 관련지어 내면화하는 것은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불문하고 문학의 수용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학 수용의 결과를 내면화' 하는 것에 대해 문학의 수용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교과서의 학습활동 또한 내면화 단계를 고려한 활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작품의 내용에서 주인공의 성격과 심리, 주인공의 삶과 인간관계를 통해 주제와 의미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문항을 체계화하였지만 '나'의 경험을 이끌어 내거나, 유사한 정서를 느껴본 경험 등을 바탕으로 문학 수용이 '학습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질 과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체계화한 문항은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 따라서 내면화의 과정을 고려한 학습활동이

좀 더 구체화된 문항으로 발전되고 학습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객관화하여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바는 문학 수용의 결과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활동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즉, 내면화의 과정을 통해 문학이 학습자의 인성까지 도야할 수 있도록 깊은 수용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습자가 문학 수용의 결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물음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내면화의 과정을 고려한 학습활동을 꾸준히 심되, 문항이 구체적이면서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의 적용을 실천 가능한 활동이 되도록 ‘학습자 중심’에서 좀 더 체계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문학의 생활화를 지향한 적용중심 활동

학습자의 삶에서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문학을 즐길 수 있는 ‘생활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적용학습의 지속적이고도 심화된 구성이 필요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언어와 문학에 대한 지식은 다양한 국어 사용상황에서 활용되어야 더욱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글의 생산, 수용 활동에 작용하는 맥락을 중요하게 여기며 작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재를 생산하는 활동을 통해 국어 능력이 신장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작품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맥락에서 적용하여 언어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국어 능력의 신장’과 ‘문학을 생활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용한 작품을 다른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용학습’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적용학습이 잘 실현된다면, 학습자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사고(思考)하는 과정에서 사고

가 확장되는 경험과 일상생활에서 적용 또한 기대할 수 있다. 결국은 ‘적용’ 과정을 통해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고 작품 해석에 대한 능동성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학이 여러 범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학습자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다면, 문학을 어려워서 기피하는 대상이 아니라 좀 더 생활과 연관되어 친근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용학습을 구성할 때 다양한 장르와 매체, 사회적인 문제 및 상황과의 통합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적용제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점은, 수용한 문학 작품을 충분히 여러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자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분석한 교과서들 중에서는 ‘적용학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용학습’의 장을 따로 마련하여 구성한 교과서도 있었다. 그러나 ‘적용 단계’의 형태로 학습활동에서 몇 가지 문항으로 마무리 되는 교과서도 있었다. 앞에서 논의한 학습활동의 방향으로 본다면 적용학습이 더욱 심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작품내용의 이해와 학습목표와의 연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의 달성을 위한 학습목표에 치중하다보면, 작품 자체의 고유한 특징과 주제가 학습자에게 미치는 가치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목표를 반영한 학습활동을 구성하되,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해를 바탕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작품의 구성요소인 내용과 형식, 표현의 의미에 대한 이해,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며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등을 이해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학습 목표 성취를 위한 특정 주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작품의 더 깊은 수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학습목표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제재의 활

용보다는, 작품 내적인 의미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 학습목표의 성취를 함께 연결할 수 있는 학습활동의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분석한 교과서 중에서도 학습 목표에 대한 성취 가능성은 충분하되, 작품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설명 하에 보충될 수도 있겠지만, ‘학습자 주도’를 지향하는 학습활동의 방향으로 미루어 본다면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결 론

지금까지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이청준의 ‘눈길’과 김유정의 ‘봄·봄’을 중심으로 새롭게 편찬된 16종의 교과서 중 5종(59) 교과서에 실린 6편의 학습활동을 분석해보았다. 서론에서는 개정된 교육과정의 간략한 특징과 함께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였고 개정된 교육과정의 특징에 따라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II장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문학영역의 특징과 소설교수·학습방법을 통해 학습활동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개정된 교과서의 학습활동 문항들을 서론에서 제시한 분석 기준에 의해 분석해보았고 IV장에서는 III장에서 사례분석을 통한 학습활동의 반영양상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보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문학과 학습자의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학습자의 일상생활에서도 문학을 활용하여 말할 수 있고, 즐거워하며 문학과 함께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을 ‘문학의 생활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의 문학교육이란 작품에 대한 지식의 이해를 강조하였고, 현장에서는 강독식 수업으로 진행되며 주어진 작품의 해석을 일방적으로 암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문학이 지닌 가치가 학습자의 내면에 살아서 학습자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예술적 기능보다, 일종의 ‘학습’의 형태로 학습자의 실제 삶과는 괴리감을 형성하고 문학이란 ‘어려운 공부’로 여겨지게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실천적이면서 학습자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 문학의 내면화의 과정을 지향한 학습활동, 하나의 생산을 이끌

59) 지학사(박), 비상교육, 천개교육(김), 미래엔 권처그룹, 디딤돌.

어내는 과정 속에서 작품에 대한 지식과 기능, 맥락이 통합되어 학습자의 주체적인 작품 수용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아 적용 가능한 ‘생산’을 지향하는 학습활동을 구성하였다.

무엇보다 학습자가 문학을 즐길 줄 알며 스스로 문학을 즐겨 찾을 수 있는 능동성과 주체성을 지닌 독자로 성장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맥락’에서 문학을 수용해야 할 것인지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작품에서 내용 및 형식과 표현의 의미 등을 파악하며 문학을 섬세하게 수용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로 하여금 작품과 학습활동에 대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작품을 잘 이해하고 작품의 가치와 의미를 깊이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학습활동이 필요했다. 또한 정보와 매체가 발달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과 정보의 수용을 배워야 할 필요가 생겼고 이러한 언어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구성한 학습활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학습활동이란, 작품을 섬세하게 수용하고 생산해내며 문학을 즐거워할 줄 아는 태도를 갖춘 학습자로 성장시켜가고자 하는 흐름에 맞추어 볼 때 국어 교육과 교재 안에서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활동은 작품을 얼마만큼 이해했으며 학습목표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작품의 깊은 수용과 내면화의 과정을 돕고 깨달은 점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학습자의 삶으로 바람직한 가치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기능 또한 지닐 수 있다. 다시 말해, 학습자에게 미치는 문학의 긍정적인 역할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해지도록 문학과 학습자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된 교과서의 학습활동의 반영 양상을 면밀히 살펴보고 더 개선

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학습활동 내용과 문항들을 분석한 뒤 네 가지의 지속시키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통해 학습활동의 방향성을 생각해보았다. 자기 주도 학습을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활동, 내면화의 구체화를 실현한 학습활동, 문학의 생활화를 지향한 적용중심 활동, 작품내용의 이해와 학습목표와의 연계이다.

학습활동의 문항의 내용이 의도하는 바에 대한 맥락을 학습활동의 문항마다 충분히 제시하여 교사의 설명식 풀이 형태를 지양하고자 하였다.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능동성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깊은 내면화를 위해 작품 해석 뿐 아니라 학습자의 삶과 경험 또한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을만한 문항이 더욱 개발되어야 할 필요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문학과 삶의 실제적인 연결을 위한 적용활동의 심화와 연구의 필요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작품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 목표를 성취해나간다면 더욱 풍부한 작품의 수용과 활용이 가능해질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개선방안은 학습자 스스로 작품을 해석할 줄 알고 나아가 작품과 삶을 연결하여 자신과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 일상생활에서 문학을 활용하며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문학 작품의 수용과 효과적인 수용을 위한 생산’ 이었고 그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개정된 학습활동이 어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한 후 지속·발전시켜야 할 점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학습자가 문학 작품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습자 스스로가 문학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고 즐길 줄 아는 것으로

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문학 작품을 깊이 수용할 수 있도록 내면화의 과정의 지향, 작품 관련 맥락과 학습활동 문항에 대한 맥락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등을 구체적인 수용 방안으로 삼았다. 학습자가 작품의 깊은 수용을 통해서 문학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해석한 결과에 대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면 국어 능력의 신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학과 더욱 친밀한 삶으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설의 긍정적인 역할이 소설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습활동의 중요성을 논의하며 연구한 것이다. 16종의 교과서와 대단원구조 전체를 모두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것, 개정된 교과서의 학습활동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근거로 논의 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학습활동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진행되어 본고의 미진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시킨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2 국어』, .
김대행 외 8인 (2010), 고등학교 국어(하), (주) 천재교육.
이삼형 외 7인 (2010), 고등학교 국어(상), (주) 도서출판 디딤돌.
박갑수 외 7인 (2010), 고등학교 국어(하), (주) 지학사.
윤여탁 외 12인 (2010), 고등학교 국어(상), (주) 미래엔 컬처그룹.
한철우 외 11인 (2010), 고등학교 국어(상), 비상교육.

<단행본>

- 구인환 외(1988), 『문학교육론』, 삼지원.
구인환 외(2007), 『문학교육론 5판』, 평민사.
선주원(2003), 『소설교육의 원리와 방법』, 새미.
이삼형(2001), 『국어교육학』, 소명출판.
우한용 외(1993), 『소설교육론』, 평민사.
최미숙 외(2008),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최지현 외(2007), 『국어과 교수-학습방법』, 역락.
최현섭 외(2005),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학술 논문>

- 고형진(2005),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학습활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시와 소설 단원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16호.
김대행(2001), 「문학 생활화의 패러다임」, 『문학교육학』 제7호, 한국문학

교육학회.

김창원(2006), 「문학교육의 성격과 문학 교과서의 지향, 제7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점검과 논의」, 『국어교육학 연구』 제27집.

신정숙(1998), 「고등학교 국어 평가 문항고찰,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제1권.

<학위 논문>

경규진(1993), 「반응 중심 문학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김경선(2009),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학습활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소설단원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안나(2011), 「2007 개정 교육과정과 국어 교과서의 현대소설 연구 : 박완서의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진아(2010), 「반응중심 소설 교육의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손인규(2005), 「중학교 국어 교과서 소설단원 ‘학습활동’ 분석」,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용옥(2003), 「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 소설 제재 ‘학습활동’ 분석」,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숙형(2000), 「중학교 국어교과서 소설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장선덕(2002), 「제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 ‘학습활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윤의(2004), 「학습자 활동 중심의 국어과 소설 지도 방안 연구 : 10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현정(2006), 「중학교 국어교과서 문학단원 학습활동의 분석적 고찰: 소설제재 6편 중심으로」,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A Study on Learning Activity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of 2009 Revised Edition — with a Focus on 10th-Grade Contemporary Fiction

Jeon Su-yeon

Majoring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light of the current tren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at focuses on rearing learners who enjoys literature, receiving and producing subtle works, "Learning Activ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Korean Language textbooks. "Learning Activity" has a basic function of checking how much of the work has been understood and whether the goal has been reached, and helping a learner see what he or she runs short in. It can also have a function of helping in-depth reception and internalization of the work and then encouraging the learner to realize the desirable values with own life building on the enlightenment. In other words, the feature serves as stepping stones

that connect the learner to literature so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literature may materialize on the learner.

In light of the practical aspect of text reception and production that is highlighted among other features of the curricular revision in 2009, the significance of "Learning Activity" that functions to have a learner set forth criteria for receiving literary works and go into specific productions should be great.

If a fiction class is to lead a learner through a fictional work to a deep insight and profound understanding of human life, a learning activity must be constructed so as to help a learner make connections to his or her own life based on knowledge and experience. The curricular revision of 2009 aims at the tenets of learning activity emphasizing internalization of such practical literature as is not to be separated from the learner's life. Also, the learner's active interpretation of a work is underscored here. Since a subjective reception can be accomplished by the consolidation of knowledge, functions and contexts into the process of eliciting production of a literary work, a learning activity expressed in terms of practice intended by the revision.

More than anything else, in what context literature should be received, it must be figured out, in appreciating a work, in order for the learner to grow into a active and self-reliant reader who enjoys literature. In other words, the learner has to be able to figure out significance of expressions as well as meaning and form of

a work to make possible a subtle reception of literature. In short, a required learning activity would have to enable a learner to grasp the context for the work and learning activity and facilitate an in-depth reception of the value and meaning of the work. Furthermore, as the information age witnesses the development of media, communication and reception of information need to be learned through various types of media. This change in linguistic environment would require a newly constructed learning activity.

Consequently, this thesis analyzes the "Learning Activity" sections intensively, chosen from all lessons on contemporary fiction in the high school Korean Language textbooks that reflect the curricular revision of 2009 in order to discuss possible improvements. Six learning activities in five out of all sixteen newly revised high school textbooks are analyzed for this study. Those selected textbooks include *Snowy Road* by Lee Cheong-jun and *Spring, Spring* by Kim Yu-jeong, and they are examined for their coverage of learning activities with the five criteria established by the important features of the revised curriculum of 2009.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questionnaire in learning activities is followed by an inquiry into the orientation of learning activities based on the scrutiny of fourtheements to stay the course or to be improved. They are concerned with learner-oriented learning activity weigh coursutonomous learning, learning activity that specifies internalization, stalication-focused activity aimed at

oclosure to literature in everyday life, and cross-linking text comprehension with the learning goals.

With learning activity questionnaire, the context has been sufficiently provided for the purpose of each question. This should help the learner think independently and actively carry out activities. Included in the discussion is the need to develop questionnaire that not just encourages interpretation of the text but also taps into the learner's life and experiences for deeper internalization. Also treated is the need for intensification of application activities and relevant researches that would practically relate literature to life. Furthermore, I think that if learning goals are to be reached based on an in-depth understanding of a text, a more enriched reception and application of the text will become possible.

The Preface examines the goals, needs, and methods of the study, while Chapter 2 searches for directions in learning activities through the features including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in the 2009 curricular revision. Chapters 3 and 4 analyze learning activities and summarize the textbook coverage of learning activities based on the analyzed cases to come up with proposals for improvement.